



8 특집 / WELCOME 2008

WE & ME [WE & ME]: 공감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위하여	고영직	4
L [Living Art & Longevity]: 미술계의 원기를 회복할 '푸른 동력원'을 찾아서	노형석	8
C [Creativity & Critics]: 창작과 비평, 소비자의 건강한 3자 동맹 회복을 위하여	김승현	12
O [Ocean & Opportunity]: 창작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곳, 문화 공간의 오늘과 내일	장지영	16



인터뷰

내향적인, 그러나 춤에 있어서는 열정적인 두 무용가가 만나다. 안성수 vs. 정소연	심정민	22
해답은 재미있게 사는 거야. 노래와 그림을 가로지르는, 조영남	김아형	26

서울 예술

혜화문에 땀하다	박사	30
----------	----	----



예술의 새로운 지형

칙릿은 된장녀들이나 읽는 책일까?	백영옥	34
개념을 창조하는 미술	이선영	38

둘러보기

김지훈	42
배성미	44

예술가 에세이

신대륙을 가다	김용호	48
---------	-----	----



서울의 문화공간

홍대 이야기 3 / 홍대앞 다시 보기	이동준	52
----------------------	-----	----

서울문화재단 문화정보

		60
--	--	----

시민참여후기

문화예술교육, 새로운 복지의 길을 열다!	김영민	62
------------------------	-----	----



WEL- COME 2008

특 집

‘Welcome’의 철자 조합을 프리즘 삼아 2007년을 정리하며 문화계에 대한 다양한 조명을 통해 내년으로 이어질 서울의 문화 활동을 투영해본다.

유력 일간지 문화부 기자 3인과 문화평론가의 전망을 살펴보자.

WE & ME

[WE & ME]: 공감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위하여

글 / 고영직

(문학평론가,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나는 나와 나의 환경이다”라고 역설했다. 불변의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없고 이제 각자 개인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뜻을 함축한 이 말은, 현대 문화의 특성이 진리에서 재미로 이동한 문화 변동 현상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문제는 나의 환경에 해당하는 지점, 즉 나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통된 미래’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점이다. 공통된 미래에 관한 사회적 · 문화적 합의가 미처 형성 · 합의되지 못한 사회는 필연적으로 공허한 미래주의의 덫에 포획될 수 있다. 실제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견뎌내야 미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식의 ‘보장성 보험’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사회에 합의된 문화 이념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예술적 상상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관한 나의 답변은 일단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른바 자율 사회의 문화 이념은 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심각한 소통의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적 상상력은 의미 있는 소음(騷音)을 만들지 못하고 추문(醜聞)화하고 있는 것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화 이념과 상상력이 없는 사회에서 좋은 삶, 좋은 사회(good society)에 관한 비전과 실천 의지를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문화 이념의 부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문화의 ‘결정적 영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부재 내지는 회피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도정일 교수는 ‘문화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프레시안》, 2007. 10. 17)라는 강연에서 정치 · 경제 발전을 포함한 사회 발전은 문화를 토대로, 문화라는 요인에 의해, 그 발전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 아래,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신념과 가치, 목표와 이데올로기 등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반목, 쟁투는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 한 공동체가 유지되자면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을 제시해주는 문화

가 필요합니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 중요하다면 동시에 문화적 공동성(commonality)을 찾고 확인하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밑줄: 인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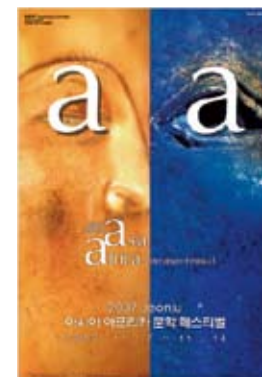
이 말은, 차이의 문화에 대한 강조도 필요하지만 문화적 구심력을 통한 사회 통합의 원리를 찾고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의 문화적 가치란 무엇인가. 도정일 교수는 인간 존엄성과 품위, 생명 존중과 평화 애호, 자연과 인간의 공생, 선의와 동정과 관용, 공유의 기억과 정의 등과 같은 상식적인 가치들을 열거한다. 지난 11월 전주에서 열린 ‘아시아 · 아프리카문학축전’에 참여한 각국의 문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라고 공동선언한 것 또한 결국 문화적 가치들의 복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라고 볼 수 있으리라.

그런 점에서 문화적 · 예술적 소통의 위기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통(疏通)이라는 말은

‘트임’과 ‘통함’을 의미한다. 소통이라는 말은 《한한대자전》에 따르면 ‘개통분원(開通分遠)’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해 홀로 서고자[分遠] 하는 탄생의 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기 바깥의 세상과 통(通)하고자 하는 문화와 예술이 자신의 생사를 찢는 듯한 고통을 응당 감내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지성(至誠)을 하지 않고서는 감천(感天)의 경지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강한 것, 이기는 것, 돈 되는 것이 도덕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유포, 권장, 강요되는 현실에서 문화적 가치들은 소통의 기능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다. 예컨대 독서와 내면의 가치가 더 이상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문화예술의 속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스스로 말하듯이, 새로운 상징을 사회에 제시하고 공감(共感)의 언어를 발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은 결국 M. 피카르트가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지적한 바 있는 ‘맥락 없음’에 대한 저항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특히 문화 정책에 관해 나와 우리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문화 정책의 주체가 오로지 정부와 지자체 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나’라는 주체 또한 타자(=지배자)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문화 정책에 관한 한 ‘나의 문화 정책’과 ‘우리의 문화 정책’을 동시에 사유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나는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예술과 인문학이 특히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감의 언어를 발견하고 세상에 던질 줄 아는 비전 제시의 능력이라고 믿는다. 이 점에서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공생 공락의 가난’을 위하여〉(《녹색평론》 2007년 11-12월호)라는 글에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 대

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 이 글에서 말하는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란 감성지식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러한 가치 지향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공적 행복(public happiness)의 작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논자들이 지적하듯이, 문화는 조화를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예술은 일종의 반역의 정신과 형식 실험을 허용함으로써 성상(聖像) 파괴마저 용인할 줄 아는 상상력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최근의 문화예술은 차이의 미학과 재미 이데올로기를 유독 강조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차이의 미학은 마땅히 필요하며, 앞으로도 더욱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차이의 미학이 과연 사회적 약소자의 ‘특이성’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인식의 심화로 나아갔는가? 문화예술의 절대적 가치판단의 척도로 부상한 재미에 대한 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미의 의미’에 관한 사유가 중단 내지는 실종된 것이 더 큰 문제는 아닐까? 여기



서 말하는 재미의 의미란 나의 사유를 넘어 우리의 사유로 확장될 수 있는 문화적 가능성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나는 미래학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앞으로의 문화와 문화적 소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예측과 입장을 말할 처지는 못 된다. 그러나 나(me)와 우리(we)의 삶이 지속되는 한, 자유에 대한 갈망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지지를 보낼 수 있다. 문제는 문화적·예술적 소통이며, 그 소통의 동력은 무엇이고, 과연 있다면 그 동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나는 문화적·예술적 소통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믿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힘과 가능성을 믿는 세상의 지음(知音)들이 쇠락의 길을 먼치 못하는가 하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예술 소음(騷音)

이 희박해지고 있는 점은 나와 우리가 성찰해볼 일이다. 어느 성인이 그랬던가.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내 안의, 우리 안의 능력과 가능성을 알고 찾아가려고 노력할 때, 나와 우리는 아마도 벼락처럼 새로운 문화 탄생의 순간을 연출하는 ‘주역’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인 김수영의 〈사랑의 변주곡〉은 바로 새로운 문화 탄생의 순간에 대한 간절한 기구(祈求)라고 생각한다. “복사씨와 살구씨가 / 한번은 이렇게 / 사랑에 미쳐 날뛰 날이 올 거다! /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같은 잘못된 시간의 / 그릇된 冥想이 아닐 거다.” 사랑에 미쳐 날뛰는 공감의 언어는 그렇듯 잘못된 시간의 그릇된 명상(冥想)을 넘어설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을 준비하는 자가 사랑에 미쳐 날뛰 그날을 맞게 될 것이리라.

고영직

문학평론가. 1968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지은 책으로는 《천상병 평론》(편저)과 《희망의 예술》(공저) 등이 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이다. gohyj@hanmail.net

[Living Art & Longevity]: 미술계의 원기를 회복할 ‘푸른 동력원’을 찾아서

글 / 노형석
(한겨레 21 문화팀 기자)

올해 미술 장르로 대표되는 시각 문화 분야는 ‘스타 탄생’의 재미를 스스로 누렸다. 10년의 불황 터널을 단박에 헤쳐 나온 미술 시장엔 휘황찬란한 스포트라이트가 내내 쏟아졌다. 불붙은 경매 덕분에 미술 시장은 투자의 신천지로 일어섰다. 주요 경매사 매장은 일 년 내내 흥분 속에 흥청거렸다. 뿐만 아니다. 미술이라는 아트 장르 차원을 넘어 광고와 디자인, 건축 등을 포괄하는 시각 문화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팝아트풍 미술의 대유행 속에 대중문화, 상업미술, 순수미술의 벽이 허물어졌다. 반면 전직 큐레이터 신정아 씨의 가짜 박사 사칭 사건은 전혀 없는 사회적 과문을 낳으면서 후질 대로 후진 한국 미술 제도의 급소를 드러냈다. 시장과 제도가 올해처럼 공전의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적은 유례가 없을 정도였지만, 그 양상은 이처럼 별과 그들의 극단적인 단면들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미술 판의 가장 큰 화두는 돈이었다. 경매사의 정기, 특별 경매와 화랑들의 아트페어(화랑들의 미술품 판매 전람회)를 축으로 시장에 풀린 돈만 4,000억 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 11월까지 열린 경매, 아트페어의 매출 총액은 1,800억여 원. 12월에 열릴 서너 개 주요 경매사의 경매 매출액을 합친다면 올해 매출액은 2,500억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경매 총 낙찰액(544억 원)과 비

교하면 4배 이상 되는 수치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랑과 경매사들은 호황가도에 숨이 가빴다.

지난해 미술품 불황이 바닥을 쳤다는 판단 아래 본격화하기 시작한 경매 열풍은 3, 40대 컬렉터 층의 급부상과 투자 수요와 미술의 저변 확대,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온 유동자금 유입 등의 호조건을 만나면서 더욱 불이 붙었다. 애초 박수근, 김환기, 천경자, 김중학, 이우환 같은 근현대 작고 원로작가들의 작품들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올해 중반기부터는 오치균, 사석원 등과 다수의 젊은 유망 작가 군들도 경매시장에 블루칩으로 본격 등장하면서 시장의 외연은 더욱 확대되었다.

지난 5월 서울옥션 경매에서는 국민화가 박수근의 작품이 45억 2,000만 원에 낙찰되어 경매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거장의 그림이 빌딩 한 채 값을 능가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림에 조예가 없는 중년 주부, 직장인 베타이 부대 등의 일반 투자자들도 미술 시장을 기웃거리면서 메이저 경매사의 하루 거래량이 100억 원을 넘기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새삼스런 현상이 아니다.

서울옥션과 K옥션 외에 서울과 지방에는 신생 경매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경매시장의 성장에 뜨악한



반응을 보였던 화상들도 시장이 뜨자 약삭빠르게 아트페어 장사로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여기에 최근 세계미술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현대 미술 작가들과 앤디 워홀, 데미언 허스트 등의 구미 작가들까지 가세해 시장 양상은 더욱 규모가 커지고 내용상으로도 복잡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 시장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부작용과 제도의 미비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급증한 경매 작품작들이나 화랑가 매물들의 진위를 판별할 감정 시스템과 ‘작전’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의 룰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2005년 사회문제화되었던 서울옥션의 이중섭 유족 위작 작품 파문은 올해도 계속 이어졌다. 유족과 손잡고 이중섭 대형 기

획전을 추진했던 한 문화계 인사가 가짜 이중섭 작품인 소장품 2,000여 점을 공공연히 유통시키려 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던졌던 것이다.

경매 작품작이 급증하면서 고미술, 현대미술을 막론하고 크고 작은 진위 시비가 올해도 끊이지 않았다. 소득이 증대되고 문화를 즐길 기회가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컬렉터 층의 확충이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유동자금이 몰리고, 경매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단순한 영리 목적으로 전문성이나 문화적 소양이 없는 이른바 천민적 투자자들이 단기 시세 차익 위주의 거래에 집중하거나 특정 작가 사재기를 하는 등의 전형적인 투기 양상 또한 늘어나고 있다. ‘투기자본의 수건돌리기 게임’, ‘안목 있는 컬렉



터 대신 돈맛 아는 비전문가들이 화랑가를 장악했다'는 등의 우려 또한 적지 않은 것이다.

또 메이저 경매사인 서울옥션과 K옥션의 대주주인 가나아트센터와 갤러리 현대 등의 메이저 화랑이 1, 2차 시장 거래를 독점하며 잇속을 챙긴다는 비판도 여전했다. 메이저 경매사들이 대주주 화랑의 전속작가들이나 주로 거래하는 작품들을 일방적으로 띄우는 작전을 펴고 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었다. 급기야 경매사와 화랑주들은 지난 10월 만나 경매 횟수 제한과 경매사 운영 화랑의 전속작가 경매 출품 금지 등에 대한 신사합의안을 내기도 했지만, 약속이 실효성 있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공신력이 크게 떨어지는 현행 감정 시스템 제도의 전면적 개편과 상식과 선의가 통하는 투자 거래 관행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올해 미술 시장은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시장과는 별개로 미술동네는 올해 부끄러운 자화상을 한국 사회 한복판에 날낫이 드러냈다. 가짜 외국 명문대 박사학위를 내세워 동국대 교수와 내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자리까지 올랐던 전직 큐레이터 신정아씨의 사기극 파문이 미술계에 남긴 생채기는 컸다. 사건은 학위 위조와 거짓 경력에 바탕한 출세 사기극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 고위 관료와의 염문 커넥션으로까지 번지면서 올 한 해 국내를 진동시키게 만든 정치, 사회적 이슈거리가 되고 말았다.

여러 함의가 있겠지만, 미술 제도의 관점에서 신정아 파문의 본질은 큐레이터십의 문제다. 곧 작품의 전시를 짜고, 작가를 고르고, 일정한 미술 유파의 트렌드까지 창출할 수 있는 전시 기획자의 양성 과정, 기획자



의 위상과 역할이 국내 미술 판에서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반면교사의 사례였다. 재벌, 유한층 관장이나 화랑주들의 꼭두각시, 하인이거나 고급 사고 전문가처럼 이중적으로 곡해된 큐레이터의 왜곡된 현주소가 신정아 사기극의 온상임이 극명하게 드러났으나 미술계는 무력했다. 평단이나 기획자, 미술 언론들 대부분은 별다른 자성이나 자정의 실질적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 채 시종 신정아 논란과 수사 과정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았다. 시장 활황과 미술 소통의 국제화에 전혀 호응하지 못하는 미술 제도의 후진성 앞에 젊은 미술인들은 절망감을 곱씹었다.

물론 비극적 사건에만 눈 돌리고 괴로워하기엔 미술 판의 영역이 확실히 넓어졌다. 특히 공공미술 분야의 도약과 변화는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하다. 최근 1년 사이 국가와 지자체가 나선 공공미술사업의 조직적 확산과 장르 콘텐츠의 진화가 눈에 띄게 도드라졌다. 조악한 조형물들을 신축한 건축물 옆에 우격다짐 식으로 채워 넣어 공공미술로 포장되었던 양상이 바뀌었다. 젊고 진보적인 작가들이 변두리 소외 지역의 주민 공동체 공간에 들어가, 소통을 병행하며 공간 환경을 미학적으로 바꾸는 시도들이 어느새 전국적으로 일상화된 흐름으로 정착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문화관광부 산하 공공미술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여러 지자체 문화재단도 관련 사업에 뛰어난 상태다. 문화부 공공미술추진위가 소외 지역 공공미술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트인시티'의 경우, 올해 계획되어 10~11월 선보인 공공미술 현장 사업만 16곳에 달한다. 사업 콘텐츠도 단순히 서민촌에 벽화 그리고 환경 미화

를 시켜주는 차원을 벗어났다. '전남 담양 5일장'이나 '충남 부여 버스터미널 프로젝트' 등 공동체의 동적인 생활공간과 적극 접목하거나 제3세계 노동자 문화 공간화를 겨냥한 '경기 안산 국경 없는 마을 만들기' 같은 프로젝트도 나왔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도 젊은 작가들과 협업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바람이 번지는 중이다. 안양시의 경우 2005년부터 미술기획자에게 일임한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를 확대해, 올해는 안양시청과 도심 가로에 국내외 저명 작가들의 조형물들을 콘셉트에 맞춰 설치하기도 했다.

21세기 사회참여 미술의 대안이자 비평적 공간의 확충이라는 의미를 지닌 공공미술의 진화는 분명히 고무적 현상으로 비친다. 하지만 생계에 급급한 지역 서민들과 체감 가능한 소통 형식의 개발이라든가. 커미션 비리를 낳는 건축물 장식제 법제의 개편, 지역 마케팅 차원에 머물고 있는 지자체의 인식 개선 등 장기적 차원의 사업 틀 확보 같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비슷한 맥락에서 올해는 시각 문화, 미술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또한 획기적으로 신장된 한 해로 기록될 것 같다. 미술 시장의 활황세도 원인이지만, 다른 한 축으로 올 초부터 죽 이어진 대형 블록버스터 전시의 업그레이드를 꼽을 수 있다. 밀레, 마네, 고흐 등의 유명 원작을 선보인 프랑스 오르세미술관전, 함스부르크 왕가의 컬렉션 편력을 정리한 덕수궁미술관의 비엔나미술사박물관전, 중국 주요 국공립 미술관의 고미술, 고고

학 명보들을 간추린 서울역사박물관의 중국 국보전, 인상파 대가 모네와 고흐의 서울시립미술관 컬렉션전이 화제 속에 치러졌다. 규모 못지않게 컬렉션의 질 또한 높아져 대부분 20만 이상의 관중 동원을 기록했다.

블록버스터 전시회의 질적 향상은 시각 문화에 대한 대중의 높아진 인식 수준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국내 소장 작가들의 전시 공간을 잠식하면서 전시 패턴을 양극화시켰다. 특히 국공립 미술관들의 무분별한 블록버스터 상업 공간 대여는 본분을 망각한 장삿속으로 비판받아야 한다.

시장 활황과 조종하면서 새 시대의 미술 조류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성과를 거두었을까. 미술 판은 시장을 돌릴 돈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상상력으로 무장한 전위적 청년 작가의 힘이 있을 때 더욱 살아난다.

많은 미술인들은 올해 시장은 그리도 흥청거렸지만 원기를 공급할 '푸른 동력원'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 카셀도큐멘타, 뮌스터 조각프로젝트 같은 저명 국제 미술전이 잇따라 열린 해였지만, 정작 국제무대에서 작품성으로 두각을 드러내거나 초청받은 한국 청년작가들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전시 경력과 돈맛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대로 작업하며 조금씩 작품 가치를 드러낼 작가들을 내년에는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

노형석 nuge@hani.co.kr



C [Creativity & Critics]:

창작과 비평, 소비자의 건강한 3자 동맹 회복을 위하여

글 / 김승현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지난 10월 27일 토요일,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국민대 디자인센터에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합평회가 열렸다. 연극 부문에서 평론가 3명이 발제를 하고, 평론가 2명이 토론을 벌였다(토론을 벌인 평론가 1명은 극작가로도 유명하지만 이날은 평론가 자격으로 참여했다). 무용 부문도 마찬가지로 평론가 3명이 발표를 했다. 플로어에는 연극·무용 평론가 10여 명과 학생 10여 명, 그리고 예술감독을 비롯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관계자 10여 명이 전부였다. 연극배우, 연출가, 무용수, 안무가 등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사실상 주인공이었던 창작자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통합의 축제다. 21세기 들어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등 기존 예술의 장르 간 분류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크로스 오버가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태어났다. 하지만 이날 합평회를 보면 장르 간 통합은 고사하고 장르 내부의 창작과 비평조차도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

18세기 비평이 하나의 예술 장르로 자리 잡은 이래 대체로 창작과 비평이 사이가 좋았던 적은 찾기 힘들다. 개와 원숭이 같은 원수지간은 아니더라도 개와 고양이 사이쯤으로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을 계속해왔다. 하지

만 서로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때로 할머니를 도와 재산을 되찾은 개와 고양이의 우화적 협력관계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로 무관심한 것이 마치 소가 닭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례적인 일이겠지만 2, 30여 년 전 한국에서 창작과 비평, 이 둘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었다. 일란성 또는 이란성 쌍둥이로 느껴졌다.

이 같은 생각에는 《창작과 비평》이라는 계간지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을 것이다. 《창작과 비평》은 《문학과 지성》과 함께 1970, 80년대 인문사회과학계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가 참여적이고 후자가 순수예술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엄혹한 시대에서 둘 다 모두 현실 참여적일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가장 먼저 없앤 것이 순수예술가 쇼팽의 흔적이라고 하지 않던가. 《문학과 지성》에서 ‘문학’은 창작, ‘지성’은 비평을 상징하는 말로, 두 계간지의 이름 역시 일란성 또는 이란성 쌍둥이로 느껴진다.

예술이 생산되면 비평이 거기에 분석과 해석, 의미를 더했다. 소비자는 비평의 가이드를 참조해 예술을 선택하고 소비했다. 예술은 비평을 참조해 변화했고, 예술의 변화에 따라 비평도 달라졌다. 이에 부응하여

소비자의 선택도 바뀌는 등 문화예술은 창작자-비평가-소비자의 3주체가 서로가 서로에 의존하는 가운데 확대재생산 구조를 갖췄다.

이들 3자 동맹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었던 것은, 이 시기가 이념 과잉의 시대라고 할 수 있었던 만큼 비평이다. 비평의 깃발 아래 창작이 진지를 형성하여 독자와 관객이 결집했다. 문자로 된 문학보다도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등 아날로그한 순수예술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욱 짙었다. 물론 연극의 경우 문자로 된 텍스트가 중심이어서 다른 공연예술보다 상대적으로 창작과 비평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다. 각계각층 각 장르의 이런 힘들이 모여 만들어낸 공감대가 정치에서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에서 현재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기본적인 힘일 것이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다. 한국은 1990년대 어쨌든 민주화가 됐다. 2000년대에는 진보 좌파가 집권하는 혁명적 상황도 도래했다. 30년 넘게 극우적 군부 통치가 자행됐던 나라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상전벽해의 변화다. 민주화의 진행은 당연히 다원화, 다극화 사회를 이끌어냈다.

공동의 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각 진영은 발전적으로 해체, 자립을 모색했다. 꿈을 잡았으니 가족을 나눌 때가 된 것이다. 한국에서 해체를 주 무기로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냉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화가 이 같은 흐름을 더욱 부추겼다.

창작자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비평 역시 또 다른 눈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정보 고속도로, 인터넷 문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가 가장 많이 달라졌다. 창작-비평-소비자의 3자 동맹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분열과 해체 상황에 결정적인 채찍을 가한 것이 바로 1990년대 후반 한국을 강타한 국제통화기금(IMF) 시대다.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부인과 자식만 빼고 바랄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꾸라”는 말이 금언처럼 떠돌던 이 시기에 한국은 비로소 진정한 시장의 힘을 알았다. 긍정적 자본주의, 건강한 개인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살아남기 위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상황이 되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이 소비자다. 인터넷의 바다를 헤엄치며 그들은 시장을 배웠다. 흐름을 깨쳤다. 웬만한 비평가조차 이 실용적인 소비자의 날카로운 시각을 따라잡기 힘든 수준까지 왔다. 깊이와 넓이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독특한 감각에서, 특히 익명의 뒤에 숨어 뿌리는 신랄한 독설은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떠나 빛의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어 폭력적으로 창작자와 비평가에게 압력을 가했다. “진실이 바지를 입는 사이에 소문은 벌써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이 이제는 과장이 아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퍼 나르기’는 거의 빛의 속도 수준이다.

소비자는 더 이상 비평가, 전문가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인터넷 서핑을 하며 최저 가격의 상품을 믿을 수 없이 빠른 시간에 찾아내는 것처

럼 놀라운 검색력으로 다양한 정보를 비교, 분석해낸다. 이들은 비평가들에게 대단한 압력으로 작용, 의견을 강요하면서 진지한 비평을 소외, 왜곡시키기도 한다.

창작자들은 소비자의 흐름에 비평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적응했다. 이념의 시대에 유행했던 거대담론은 더 이상 찾기 어렵다. 개인의 신변잡기 일상사 중심으로 바뀌었다. 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하던 것에서 자신의 의식, 무의식의 고백을 통해 자아 찾기가 주류가 되었다. 냉혹한 사실주의보다는 다양한 판타지가 살아 있는 우화, 냉소주의적인 패러디로 독자와 관객들에게 다가갔다. 명철한 이성보다는 전설과 역사, 철학이 뒤엉킨 신화에 매료되었다. 마법과 주술에 관심을 가졌다. 현실 비판적인 사실주의 비극보다 현실을 인정하는 유희적인 코미디를 선호했다. 출판은 자기개발, 경제·경영, 처세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버렸다.

창작자들이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하려 노력했지만 소비자들의 변화는 창작자들의 생각보다 상당히 앞서갔다. 무한경쟁 실용주의 경향에 전 세대를 지배했던 인문사회과학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고도 한다.

반면 본래 선비정신을 지향하는 비평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일부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와 장르의 크로스오버를 인정하여 열린 비평이 행해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비평은 더욱더 원론으로 나아갔다. 창작이 소비자의 기호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창작을 질타하고 독자와 관객의 무책임한 기호, 관련 기관의 무능한 정책을 비판했다. 소비적 문화예술의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비평은 상아탑에 최후의 진지를 구축, 더욱 완고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비평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종합일간지에서 비평을 보기 힘들어진 것도 최근의 한 특징 중 하나이다.

정확히 IMF 시대를 계기로 대부분의 신문에서 비평이 사라졌다. 평론가들의 비평(critics) 대신 기자들의 리뷰(review)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전문지가 아니라 종합지인 만큼 소비자인 독자의 경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문사의 경영 합리화 등 구조조정의 측면도 없지 않지만, 반 발짝 앞서가길 원하는 종합지에서 한 발, 두 발 몇 걸음씩 앞서가는 전문적인 비평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언제고 배우는 일을 좋아한 때가 있으라마는 인터넷 시대에 소비자들은 가치관이 다른 상대가 가르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그 결과 전문 비평가의 평론보다는 저널리즘의 리뷰가 대세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비평이 원인과 책임을 외부로만 돌려서는 곤란할 것이다. 원칙을 중시하는 대쪽 같은 선비정신도 중요하지만 시대와 현실을 이해하는 관용과 지혜도 필요한 것이다. 항복 문서를 찢는 김상헌도 있어야 하지만 이를 붙이는 최명길도 필요한 것이다. 창작과 비평에서 창작이 있는 뒤 비평이 있게 마련이다. 비평에 이은 창작 치고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비평이 창작에 앞서 있었던 것이 그동안 한국 문화예술계의 경향이기도 했다.

이런 지사(志士)적 계몽비평은 먼저 소비자에게 외면당했다. 일부 장르의 경우 비평이 현학적 이론과 전문성에 매몰되어 일반 대중 가이드 기능을 상실했다. 또 과격한 주장 또는 과당적 경향으로 인해 불편부당,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여기는 종합지로서도 멀어졌다.

창작자 역시 이론에 매달려 현실을 보지 못하는 평론을 무시하기에 이른 것 같다. 그 단적인 결과가 지난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의 ‘그들만의 합평회’가 아닌



구스타브 모로, 《살로메》

되는 그런 3각 동맹체제가 모두에게 이로운 틀이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 이들 3각 체제가 지나치게 강한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각자 소 닭 보듯이 무관심한 것은 분명 더 심각한 문제다. 대립과 갈등에서는 ‘미운 정’이라도 생기지만, 무관심과 냉소 속에서는 생명력을 잃은 불임밖에 자리할 수 없다.

1980년대 창작과 비평이 일란성 또는 이란성 쌍둥이이던 시절 비평이 앞섰고, 창작과 소비자의 선택이 뒤를 이었다. 21세기 이 3각 동맹의 해체는 소비자가 먼저 등을 돌렸고, 창작자가 소비자를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비평은 근본주의적인 완강한 태도로 고고하게 앉아 동맹의 해체를 바라보고 있다. 협력관계였던 시절의 역순으로 작용하는 힘이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동맹의 재복원 역시 해체에 작용하는 힘의 역순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비평이 신자유주의 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비평의 소비자는 창작자와 독자, 관객이다. 비평이 현장으로 내려와 창작자와 독자, 관객의 곁에 서서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그래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현 체제 안에서 3자 동맹관계의 회복을 통해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다.

김승현

1961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학사 및 동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데 이어 프랑스 파리 3대학 소르본 누벨에서 ‘국제문화정책과 예술행정’에 관한 고급전문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 《축제만들기-방리의 불뢰즈 페스티벌에서 배우는 문화전략》, 《이야기가 있는 미술관》 등이 있다. hyeon@munhwa.com

가 싶다. 그리고 사실 합평회에 글쓴이도 무용평론가의 입장에서 참여했지만, 평론가들이 완고한 이상주의에 경도되어 현실은 전혀 보려 하지 않고 이상적인 이론만을 강조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예측한 창작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평론가들의 지적에 현실적 이유를 들어 거의 발제 수준으로 조목조목 답한 예술감독의 현장의 목소리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다.

창작과 비평, 소비자의 파국적 분열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건강한 비평이 죽을 경우 깊은 산 작은 연못 속의 봉어처럼,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될 수 있다. 소비자는 더욱 강한 이미지와 자극을 원하게 되고, 창작자는 이에 부응해 더 한층 상업적이 되는 등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될 것이다.

비평이 창작을 자극하고 지원하며, 소비자들을 올바르게 가이드하고, 이것이 피드백되어 비평 역시 강화

O [Ocean & Opportunity]: 창작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곳, 문화 공간의 오늘과 내일

글 / 장지영 (국민일보 문화부 기자)

최근 세계 현대예술의 중심지가 뉴욕에서 런던과 베를린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미술의 역사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누린 적이 없던 영국은 1990년대 이후 지각변동을 일으켰는데, 데미언 허스트를 필두로 yBa(young British artists)로 불리는 영국 젊은 작가들의 급부상 덕택이다. 독일 역시 미술,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현대예술 분야에서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예술가들을 배출하며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과 독일의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무엇보다 기계적으로 기금을 지원하던 비효율적 관행을 타파하고 현장에 토대를 둔 방식으로 프레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노동당이 들어서면서 '크리에이티브 브리튼(Creative Britain, 창의적인 영국)'이라는 구호 아래 문화예술 정책을 펴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예술 공간에 대한 지원으로,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보다 2차 산업의 산실로 낙후되었던 공장이나 창고 등을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를 리노베이션한 런던의 테이트모던이나 제분공장의 곡물 창고를 개조한 게이트헤드의 발틱현대예술센터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이런 대형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 외에도 영국은 예

술가들의 창작 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안 공간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 그리고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보 제공이나 컨설팅, 멘토링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예술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매체나 환경을 활용한 예술이 쏟아져 나오며 따라 작품을 만들어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까지 지원을 넓히고 있다. yBa 역시 처음에는 런던 변두리의 창고에서 시작했는데, 미술 시장의 압력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작가 지원 시스템 덕분에 성공을 거둔 것이다.

영국의 이런 지원 방식은 직접 기금 지원보다 간접 지원 또는 복합적인 지원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지역에 특화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 커뮤니티와의 연계, 청소년 및 주민의 예술교육 등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들이 생김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독일 역시 기존의 오래된 건물을 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는 한편 작품의 제작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에 역점을 두고 있다. 통독 이후 명실 공히 유럽의 문화 수도를 지향하는 베를린의 경우 고유의 기능을 상



대학로 연습실

실한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병원, 맥주 양조장, 호텔을 개조해 복합 문화 공간인 쿤스트러하우스 베타니엔(Kunstlerhaus Bethanien), 쿨투어브라우어라이(KulturBrauerei), 타흐레레스(Tachleles)로 만들었다.

쿤스트러하우스 베타니엔은 혁신적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동시에 유럽 무대에 소개하기 위해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과 큐레이터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특히 예술가들의 지원을 위해 예술가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적합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예술가들의 성과는 인터넷 웹진과 전시로 일반에 공개된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 역시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작업실, 음악스쿨 등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험적인 음악 콘서트와 다양한 양식의 전시가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시 낭독, 연극, 퍼포먼스, 세미나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위한 공간으로 대여되기도 한다. 오랫동안 방치된 호텔을 고친 타헬은 창작 공간이 없는 예술가들에게 작업장과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문화예술 지원 정책으로 창작 공간 조성 및 운영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역시 기존의 1회성 공연 또는 전시를 위

해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서 창작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젊은 예술가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데 눈을 돌리고 있다.

가장 먼저 나온 성과가 2004년 12월 저렴한 가격으로 무대공연을 연습할 수 있는 '대학로 연습실'이다. 총 1,024평방미터(310평) 면적에 230평방미터(70여 평) 규모의 연습실 2개와 165평방미터(50여 평) 규모의 연습실 2개, 리딩룸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탈의실, 사무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된 이 연습실은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통한 시설 확보 및 리노베이션을 거쳐 서울문화재단이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문 연습 공간 부족을 호소했던 무대예술계에 숨통을 틔워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만들어진 것이 지난해 4월 개관한 난지창작스튜디오다. 서울시립미술관이 난지도 침출수 처리장을 리모델링한 이 창작 스튜디오는 지상 2층에 연건평 1,173평방미터(355평) 규모 건물로, 1층에 조각가들을 위한 스튜디오 4개, 2층에 평면·입체작가 스튜디오 13개가 있다. 이외에 침출수처리장의 관리동 건물은 정보자료실과 청소년 미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난지창작스튜디오는 발전 가능성 있는 유망한 신진



남산창작센터

작가들에게 개인 스튜디오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안정된 환경 속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호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첫째 1년 예정으로 17명의 입주 작가를 모집하는데 240명이 지원해 14대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곳은, 올해 2기가 지난해보다 150여 명이 많은 38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2대1을 넘길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더 많은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10월 개관한 남산창작센터는 남산 실내테니스장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대형 무대공연 전용 연습실 2곳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은 향후 실험예술을 위한 창작 공간 및 신진 예술가의 발표의 장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또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난지창작스튜디오에 이어 청계창작스튜디오를 오픈하고 현재 입주 작가를 공모 중이다. 호텔의 일부를 리노베이션해서 만든 이곳은, 청계천에 집약된 공방 및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들의 기술력과 예술성을 결합한 작품을 개발, 제작,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지역과 연



계한 문화 아지트로써 시민들이 예술교육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계천을 문화의 명소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서울을 대표하는 연극의 거리 대학로에는 서울연극센터가 문을 열었다. 혜화동 동사무소를 개조해 만든 이곳은 각각 165평방미터(50여 평) 규모인 1층 정보센터와 2층 정보자료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1층 정보센터에서는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연극과 문화행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랑티켓을 비롯한 각종 공연티켓을 판매하며, 2층 정보자료관에는 공연 대본, 도서, 학위 논문 등 연극 관련 인쇄 자료와 영상 자료를 비치할 예정이다.

런던이나 뉴욕의 경우 공연예술 중심지인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 극장박물관이나 공연예술도서관이 있어서 공연계 관계자나 전공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에 공연되었던 작품의 대본이나 영상을 보관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정보관이 있지만 대학로가 아닌 서초동 예술의전당 안에 위치하다 보니 공연 관계자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



서울연극센터

연극센터가 대학로에 새로운 활기를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서울시는 난지창작스튜디오의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작업실 옆 약품저장동을 창작스튜디오 11실로, 침전조 2동을 자체 전시장과 입체 작품 작업장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예술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잠실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 데크 밑 330평방미터(100평) 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 전용 미술 창작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족필, 구필, 청각, 지체장애인 화가 20여 명이 자립할 수 있는 창작스튜디오와 장애인 편의시설(출



입구, 화장실)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창작 공간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문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 외에도 변화하는 현대예술의 다양한 양상에 맞게 창작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 예술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문화 공간이 들어섬으로써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회적 파급 효과도 일으켜줄 전망이다. 다만 창작 공간의 원활한 운영과 특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이들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장지영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성균관대 공예예술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7년 국민일보에 입사하여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aquajjy@hotmail.com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센터

연극인과 관객의 新문화휴식공간!!

서울연극센터는 서울을 대표하는 연극의 거리 대학로에 자리하여, 연극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연극인과 관객의 정보 교류를 통한 만남과 교류의 산실이 되고자 합니다. 소통과 교감의 열린 문화 공간이 될 서울연극센터는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이 공간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1층 문화와의 설레는 만남이 있는 정보교류관
2층 공연예술 지식 공유의 장 정보자료관

Interview Interview

인터뷰



내향적인, 그러나 춤에 있어서는 열정적인 두 무용가가 만나다 안성수 vs. 정소연

글 / 심정민 (무용평론가)

중견 안무가와 새내기 안무가, 만나기 쉽지 않은 두 무용가가 국립무용단 ‘안무가 페스티벌’에서 조우한다. ‘춤’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교감하는 두 안무가. 그들의 끊임없는 열정을 들여다본다.

마흔 중반의 중견과 갓 서른의 신진, 현대무용가와 한국무용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와 국립무용단의 단원……. 전자의 안성수와 후자의 정소연은 한 자리에서 어울릴 만한 접점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국립무용단의 기획공연을 통해 이미 만난 바 있다. 처음에는 안무가와 무용수라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만났으나, 이번에는 안무가 대 안무가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경합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둘 다 평소에는 내향적이면서도 춤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열정적인 무용가라는 점이다.

서로의 만남의 회상하며

안성수와 정소연의 첫 번째 연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무용단은 ‘주목’이란 기획공연을 통해 예술성을 인정받은 안무가들을 초빙하여 다양한 춤의 세계를 모색해 나갔다. 그때 초빙된 안무가가

안성수였고, 그에게 뽑힌 12명의 국립무용단 단원 중 하나가 정소연이었다. 그들이 이루어낸 작품은 바로 〈틀〉이었다.

안성수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틀〉은 ‘기존의 틀을 깨자’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당시 몇몇 무용수는 한국춤의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정소연 같은 무용수들은 그 틀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유로이 움직였으며 자유로이 생각할 줄 아는 무용수였다.”

안성수의 말에 정소연은 다음과 같이 화답한다.

“3개월 정도 〈틀〉이란 작품에 참여하면서, 안성수 선생님은 참 정성스럽게 안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선생님의 움직임에서 많은 매력을 느꼈다. 내 안에 또 다른 춤이 있음을 깨닫게 한, 그래서 나에게 성장이 있게 한 작품이 바로 〈틀〉이다. 나는 안성수 선생님의 팬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틀>이란 작품을 통해 안무가와 무용수로서 돈독한 교감을 이루어냈던 그들은 이제 '안무가 페스티벌'에서 경합을 벌이는 중견과 신진 안무가로 재회하게 되었다.



내향적인 성격, 그러나 확고한 예술 표명

안성수와 정소연은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무용가들처럼 보인다. 실제로, 안성수와 정소연은 남들과 화려하게 어울리기보다 혼자만의 사색에 잠기는 것을 좋아한다. 일상생활에서는 다소 내향적인 성격인 셈이다. 하지만 자신의 예술세계를 말할 때만 큰 목소리를 내는 듯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다.

안성수는 “춤은 나에게 있어서 종교와 같은 것이다. 그런 종교를 무대 위에서 실현시켜주는 무용수들은 너무나 소중하다. 항상 그들과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작품을 완성해간다”고 말한다. 그는 겸손하게 “공부한다”



라고 언급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안무는 연구한다거나 수련한다거나 혹은 도를 닦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잡다한 현실세계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아홉 달이고 열 달이고 작품 하나에만 매진하고 있으니 말이다.

안성수의 대표적인 창작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치밀한 이성적 예민한 감성을 통해 음악을 춤으로 형상화해가는 것이다. 안성수는 또한 무용수들 각각의 개성을 분출시키기보다는 그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구성미를 중요시한다. 그래서인지 안성수의 작품들은 대부분 완성도가 높다.

정소연은 2001년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국립무용단에 입단하여 올해로 7년 차가 되었다. 아직 군무진이긴 하지만 기본기, 표현력, 유연성, 힘, 그리고 절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점을 지닌 무용수로 인정받고 있다.

무용수로서만 활약해온 그녀에게 있어서 2005년은 안무가로 데뷔할 수 있었던 소중한 해였다. 정소연은 당시 젊은 무용가들에게 안무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무용단 기획공연을 통해 <어떻게든>이란 작품을 발표하였고 기대 이상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녀는 아직 햇병아리 안무가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확고하게 말할 줄 안다. <어떻게든>에서는 “승무의 춤사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매력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나의 몸이 느끼는 호흡으로 새롭게 풀어갔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독특한 움직임이 만들어졌다. 한국춤사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데 있어 젊고 신선한 감각이 불어넣어졌다고나 할까? 단 한 편의 안무작으



로 그녀의 예술세계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남다른 예술적 감각을 보여준 것만은 사실이다.

'안무가 페스티벌'에서 주목할 만한 그들의 공연

안성수와 정소연 춤의 면모는 국립무용단의 올해 마지막 기획공연인 '안무가 페스티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페스티벌은 국립무용단이 그동안 자체 기획공연들을 통해 실력을 검증해온 9명의 안무가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안성수는 앞에서 언급한 <틀>이란 작품을 리바이벌한다. 사실 안성수가 한 달 정도의 연습 기간만으로 작품을 올리는 것은 흔치 않는 경우다. 그것이 리바이벌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안성수는 “국립무용단 무용수들의 춤에 대한 자질과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믿기 때문에 이번 공연을 맡기로 했다. 이것을 하나의 도전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번 <틀>에서는 국립무용단 무용수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오랜 창작 기간과 전체적인 구성미를 중요시했던 안성수가 짧은 시간에 무용가들의 개별적인 능력을 끌어내는 작업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소연은 신작 <Nice Fishing !!>을 선보인다. 이 작품에서 정소연은 “희망을 갖지 않고 삶을 직시하기. 불가능을 꿈꾸기보다 가능의 영역을 최대한 누려보고 싶다”는 안무 의도를 피력한다. 이번에도 한국춤사위를 현대적으로 재편성한 독특한 춤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정소연에게는 강점이 하나 더 있다. 오랫동안 국립무용단에 몸담아왔기 때문에 무용수들과 최상의 팀워크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립무용단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신진 무용가이기도 하니 주목해보자.

안성수와 정소연은 화려한 기지를 발휘하거나 미사여구를 늘어놓을 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예술가의 진정성이 묻어나온다. 이는 안성수와 정소연이 외부적 여건에 그다지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예

술적 세계를 구축해가기 때문일 것이다. 정소연은 막 시작하는 안무가로서 여러 변화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마음속 깊이 추구하는 바를 쉽사리 바꿀 성질은 없다. 안성수는 이미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찰의 자세 혹은 도를 닦는 자세를 잃지 않고 있다. 그것이 여전히 그를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같이하면 할수록 더 많은 매력을 보여줄 줄 아는 두 명의 무용가, 그들은 안성수와 정소연이다. 그들이 펼쳐가는 춤의 세계를 국립무용단 '안무가 페스티벌'(11월 28일-12월 8일 국립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심정민

이화여대에서 무용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무용평론가와 비평사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제11회 PAF 비평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은 책으로는 《서양 무용비평의 역사》, 《무용비평이란 무엇인가》, 《21세기 전환기의 무용변동과 가치》가 있다. 21critic@naver.com



해답은 재미있게 사는 거야 노래와 그림을 가로지르는, 조영남

지난달부터 새롭게 선보인 릴레이 인터뷰의 첫 번째 주자는 배우 조재현이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다음 인터뷰이로 가수 조영남을 추천했는데, 이유인즉슨 나이가 무색할 만큼 활발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그의 열정을 높이 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영남은 1970년대부터 화가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어쩌면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붓을 들고 캔버스를 마주한 채 골똘한 시간을 가졌음이 분명하기에.

글 / 김아형 (scene PLAYBILL 수석기자)

한 인물을 인터뷰하고 그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선 단순한 '관심' 이상의 전 취재와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유명인사일수록, 잘 알려진 인물일수록 공들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가 왜 거론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글을 쓰는 기자에게 그런 건 갖춰져 있지 않다. 다만 기자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란 생각에서 시작할 뿐이다.

조영남은 가수다. 기억 속에서 조영남은 가수였고, 굳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계장터를 흥나게 불러 줬던 모습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가 노래 잘하는 가수였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는 가수인 듯싶더니 언제 그렸을까 싶은 그림들로 전시회를 열었다. 이도 모자라 너스레 떠는 MC로 매주 TV에 얼굴을 비추고, 패티 김과 어깨동무를 하고 열린음악회를 단골로 장식하는 쇼맨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내로라하는 음대에서도 노래 잘하기로 유명했던 그가 클래식이 아닌 대중가요를 선택했을 때도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았을까. 그 답은 금세 풀렸다.

화투 그리는 남자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찔한 전망을 자랑하는 조영남의 집. 그는 대부분의 인터뷰를 자신의 집에서 진행한다.

“집은 제일 비싼 집인데 비싼 가구는 아무것도 없는 피상한 집이야. 텅 빈 게 좋아서……. 나무로 된 탁자랑 내 방 침대며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손수 만든 거야” 하며 기자와 일행을 맞이한 그는 가구 대신 집안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작품을 그리고 있었다. 쪽 늘어선 그의 그림 작업들을 보는 첫 느낌은 ‘불량스러움’이었다. 그동안 예술에 대해 지녀온 막연한 경배를 조롱당한 느낌이었을까.

그의 작품들 중 상당수는 화투를 소재로 하고 있다. 물론 화투도 그림이다. 우스갯소리로 동양화의 일종인 그 빨간 플라스틱 조각에서 우린 불쾌한 왜색을 떠올

리거나 저열한 놀이에나 어울리는 조악한 상징들을 읽어왔을 뿐이다. 그런데 조영남은 고집스럽게, 아니 자랑스럽게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을 20년 이상 그려왔다. 그동안 수도 없이 받았던 질문 “왜 하필 화투를 그리니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되풀이하자면, 그건 전적으로 독창성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남들이 화투를 안 그렸으니까” 그는 화투장 48점의 조형미술과 색감, 그것의 독특한 토속적 의미와 거기 딸린 민중적 철학이 그에게 화투를 쥐는 대신 그리게 한 것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랑 양숙인 일본에서 온 건데 우린 화투를 치고 개네들은 안 하잖아. 철학적으로 보자면……왜 삶이 화투장 같잖아. 다음 패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듯 우리네 인생도 예측불허고, 우리네 삶도 화투 한 패 돌아가듯 채수에 따라 도는 인생이잖아. 얼마나 재미있어. 내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다 채수인 거야. 채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었겠지.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인가? 나이도 있는데 천천히 유명해지면 내가 손해잖아. 뭘 그리면 빨리 주목받을지 머릴 굴린 거지. 화투? 치는 건 취미 없어. 화투가 뭐라고 패에 따라 기분에 따라 기분이 갈리는지……. 광은 제일 좋은 거잖아. 그래서 축제 셀러브레이션(celebration)이야. 꽃발이 안 좋은 흑싸리에는 팔시받고 허약한 감정이 대입되고, 비는 비대로 매치시키고……그런 게 화투의 묘미야. 얼마든지 뻘어나갈 수 있거든. 화투를 그리다 보니까 바둑판에 눈이 가더라. 몬드리안의 작품처럼 조형미가 느껴지지 않나. 바둑 시리즈를 그리다 보니까 소쿠리가 눈에 띄기에 뒤집어서 쓰니까 초가집이 되고 커다란 음표도 되고 그런 거지.”

낮은 대로 임하소서

화투짝이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 우스우면서도 생각이 많아진다. 흑싸리 쪽대기와 빠알간 똥 겹질, 그리고 죽죽 쏟아지는 비 관때기가 예술의 한복판에 빼박하게 서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중섭이나 고흐를 만난 시간보다 저 흑싸리를 만지작대며 통한을 품

있던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다. 조영남의 이론대로 예술이 삶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고호의 해바라기만큼이나 흑짜리 한 장도 지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은 생각 속의 어떤 부분이 불편한 게 사실이다. 그게 바로 고질적인 엄숙주의 때문이다. 고양된 무엇에 대해 지나치게 경배한 나머지 무의식중에 억압해온 저멸해 보이는 것들 속에 숨은 진짜 마음을 들켰기 때문이다.

그의 그림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는 듯 화투의 감성이 뒤섞여 있는 우리 내면을 들추어낸다. 마치 조영남이 스스로를 화수(畵手)라고 칭하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가수(歌手)라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화수라야 한다. 그림 그리는 사람을 마땅히 화가(畵家)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화수라는 칭호는 낯설다. 그건 사회적 통념상 가수보다 화가를 우대하는 경향 때문이리라.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음악보다 미술을 더 하고 싶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남들은 하나 하기도 힘든 영역을 그는 이리저리 가로질러 출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자체가 그가 누누이 말하는 ‘재수’ 때문일 것이다.

“노래와 그림, 어려서부터 출중했지. 지난주에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을 만났어. 지금 여든이 넘는 그 선생이 내 생활기록부에 ‘음악과 미술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음’이라고 썼던 걸 글씨 기억하시더라고. 어려서부터 내가 그런 느낌을 준 모양이야. 지금껏 기억하는 걸 보면, 새로운 장르를 시도한다는 게 나이 먹고 쉬운 일은 아니지. 하지만 머리만 조금 쓰면 미술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겁을 먹어서 그렇지. 내가 자꾸 그리는 것도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야. 그래서 미술 책도 쓴 거고, 판이 몇 장 나왔는지 미술전을 얼마나 했는지 열린음악회에 몇 번이나 출연했는지는 관심 없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려면 얼마나 따분하겠어. 재미있으니까 계속하는 거지. 매번 뭘 그려야겠다 계산은 하지만 어떤 때는 맞아떨어지고 다른 때는 전혀 다른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우연에 많이 기대게 되더라고. 그게 바로 ‘재수’라는 거야. 재수가 좋으면 멋진 거 하나 나오고, 재수가 나쁘면 그

저 그런 게 나오는 거지. 내 작품을 선물도 하나고? 누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러지도 않아. 우린 그런 거 없어. 하하. 아, 몇 명 ‘결혼 선물’로 줬어. 윤종신, 한대수 색시, 박경림이랑 정선희도 그림을 줄 생각이야.”

세 가지 소원을 이루다

조영남은 가수가 아니다. 가수라는 그릇을 넘쳐흐른 지 오래다. 이 점을 간과하면 그는 늘 이상해 보인다. 그냥도 괜찮은데 왜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걸까. 노래와 그림도 모자라 매일 방송을 하고, 미술서는 물론 자신의 자전적 수필까지 펴내는 그 열정은 늘 자기 그릇에서 출렁거리며 넘쳐흐르는 데 있는 게 아닐까.

이 모든 걸 소화하자면 체력이 필수지만 조영남 왈 “사람 몸은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내 생각엔 바빠 왔다 갔다 하면 체력은 절로 단련되는 게 아닐까?”라고 ‘그 다운’ 답을 늘어놓는다. 더불어 그가 가장 중



요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만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까지 그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텅 빈 그의 거실을 채우는 건 바로 그 사람들이며 2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아울러 친구 많은 걸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친구들 중에서도 여자 친구 사랑을 아끼지 않는다. 내 ‘여친’이 세상에서 제일 ‘근사하다’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변치 않

고 오랫동안 같이 웃어주고 울어준 작가 유인경과 매일 함께 방송하는 따뜻한 최유라를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세 가지를 이뤘어.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것까지. 최근에 낸 책 《어느 날 사랑이》는 벌써 3쇄나 들어갔다가 대략 이렇게 세 가지 성공한 거 같아. 그리고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비교적 성공한 사람 속에 들어가. (웃음) 요즘 젊은 연예인들 서로 헤어질 때 비난하고 문제 생기고 하는데, 아직 나를 비난하는 ‘여친’들은 없었어. 물론 속으론 하겠지. 하지만 난 젊었을 사람들을 사귀었던 거 같아. 그게 성공 요인이 아닐까. 음악 활동은 예전보다 저조하다지만 다 노인 되면 뜨문뜨문해지는 거지. 그래도 12월 연말에 디너쇼 있어서 이제 또 그 준비를 해야 해. 많이 했어야~. 하나도 힘든데, 난 확실히 재수가 좋은 거지. 제일 재수는 좋은 DNA를 물려받은 거고, 100퍼센트 DNA에서 시작된 거니까. 형제들 중 내가 젤 좋은 유전자를 받았지만 대신 못생겼잖아. 하하. 난 뭘 숨기고 하는 비밀주의자가 아니야. 사랑에 대해 쓰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편이야. 뭐 다 개인 취향이지만 난 그게 좋거든.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각오해야지. 난 그런 거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유별하거나 고리타분한 사람이 아니라고.”

재미있게 사는 거야

오래전 조영남은 영화 한 편을 살려낸 적이 있다. 상업 영화가 아니기에 조기 종영한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를 안타까워하며 한마디 던졌고, 영화는 재상영 운동으로 이어져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분명 그의 말에는 어떤 ‘힘’이란 게 있었다. “예전엔 그게 가능했지. 방송에서의 한마디가 힘이 되기도 했는데 컴퓨터란 괴물이 나오기부터 누가 말한다고 듣는 시대가 아니야. 괴상망측해”라며 조영남은 최근에 본 영화 〈포미닉스〉를 언급한다. “기가 막힌 영화에 역시나 예술 영화는 개봉하고 오래 못 가더라”. 좀 좋다 하는 영화도 일주일 못 버티고 내리는 현실에 문화만 부르짖으면 뭐하냐는 그의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문화란 게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말로만 문화 타령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기획하는 사람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할 터인데 그 문화마인드 그걸 갖는 게 쉽지가 않으니 문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나 스스로가 악착같이 재미있게 사는 것’이야.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해. 지금 시대에는 눈치 볼 거 없이 내가 얼마만큼 재미있게 살 것인가 그걸 연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 악착같이 재미있게 사는 법을 연구해야지. 그거밖엔 없어.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내놔봐. 나? 책 쓴 걸로 예를 들면 우선 내가 품 잡을 수도 있겠고 재미있겠다 싶었거든. 하하. 근데 내가 쓴 책이 시시하면 그러니까 책 쓰는 동안 공부도 많이 했어. 재미를 찾으려니 방법이 없잖아. 내가 보기에는 젊은 층, 늙은 층 통틀어서 나보다 더 재미있게 사는 사람 없을 거 같아. 성공이나 실패냐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재미있냐 없냐가 관건이지. 봐~. (캔버스에 붓을 가져다 대며) 이렇게 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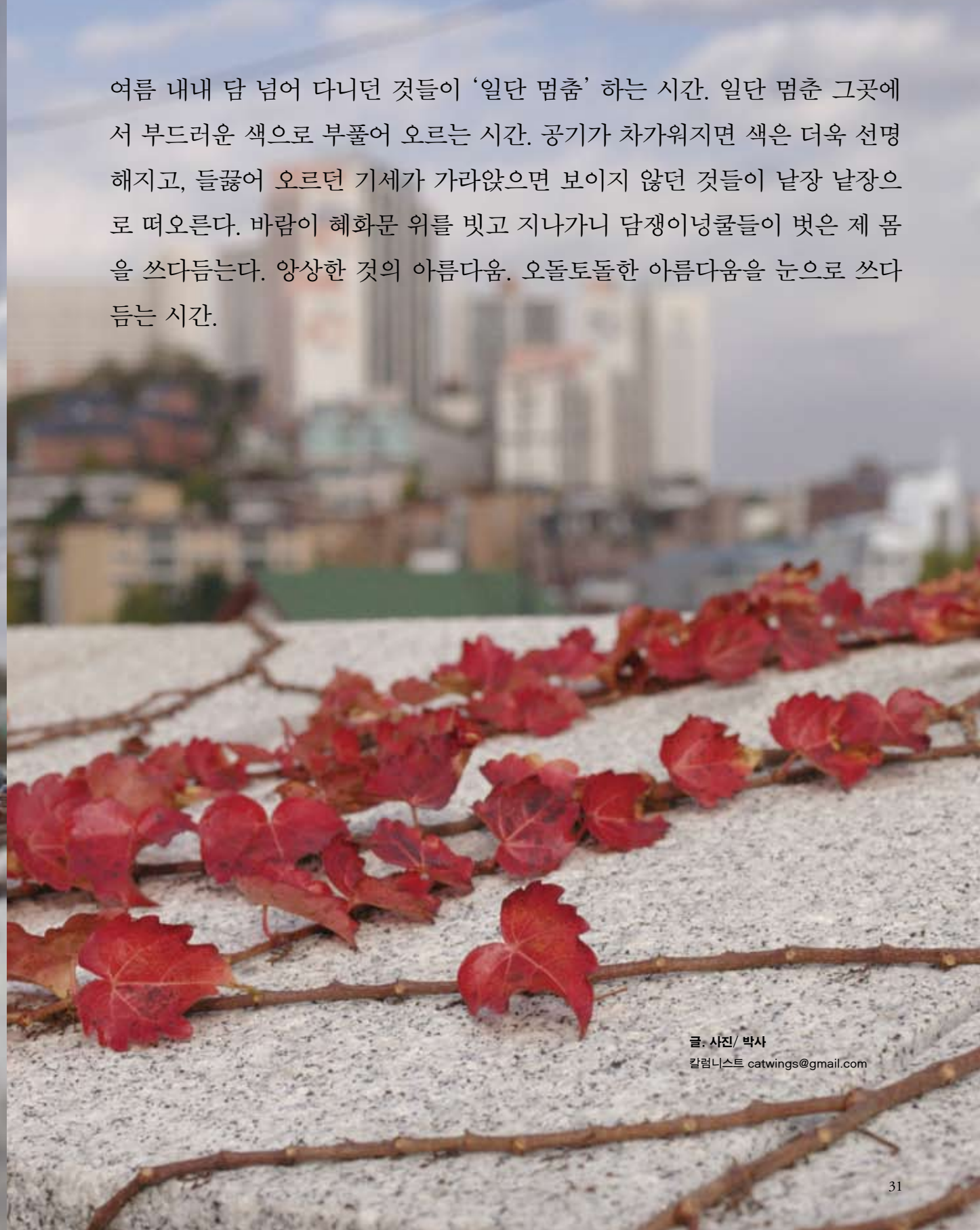
대면 근사하게 되는데, 이 재미를 보고 났는데, 이걸 500만 원에 사겠다 1천만 원에 사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얼마나 재미있니? 나 혼자 재미있게 살아서 천 번 받을 거 같아.”

김아형 ahyung@sceneclub.com

혜화문에 멎히다



여름 내내 담 넘어 다니던 것들이 ‘일단 멈춤’ 하는 시간. 일단 멈춘 그곳에서 부드러운 색으로 부풀어 오르는 시간. 공기가 차가워지면 색은 더욱 선명해지고, 들끓어 오르던 기세가 가라앉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날장 날장으로 떠오른다. 바람이 혜화문 위를 빗고 지나가니 담쟁이넝쿨들이 벗은 제 몸을 쓰다듬는다. 앙상한 것의 아름다움. 오돌토돌한 아름다움을 눈으로 쓰다듬는 시간.



글: 사진/ 박사
칼럼니스트 catwings@gmail.com

남 산 창 작 센 터



남산창작센터 대관 안내

1. 남산창작센터: 대규모 무대공연예술의 창작 여건을 활성화하고 규모 있는 창작 공간의 마련을 통한 민간문예단체의 창작 욕구를 해결하며 다양한 실험무대, 아카데미 등을 통한 무대예술인 지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2. 운영시간

연습실 구분	제1연습실	제2연습실	비고
면적	315m ²	165m ²	전일 대관 시
대관료	오전	40,000원	20,000원
	오후	80,000원	40,000원
	야간	80,000원	40,000원

● 연습실 운영은 1일 4시간씩 3타임을 기본으로 하고, 세미나실은 선택시간제로 운영하고 3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한다.

● 각 연습실 운영시간 사이에 30분간의 교대시간을 둔다

3. 오시는 길

● 지하철로 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서 하차 ~ 4번 출구, 도보 10분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하차 ~ 1번 출구, 도보 10분

● 버스로 오시는 길

명동입구에서 하차하신 후

간선(파란색버스) 104, 105, 202, 263, 507, 604 / 지선(녹색버스) 0013, 0211, 7011

4. 신청방법

www.sfac.or.kr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고하세요.



예 술 의
새 로 운
지 형

새로운 예술 장르,

낮선 사람들과
친해지다

칙릿은 된장녀들이나 읽는 책일까?

신조어가 등장할 때, 그것은 영화의 ‘예고편’처럼 일종의 예고를 하게 마련이다. 된장녀라는 국적 불명의 명사가 나왔을 때도 그랬다. 인터넷에선 누리꾼들이 ‘스타벅스’의 커피 값을 두고 비싸다, 안 비싸다를 토론하기 시작했고, 스타벅스 토론은 여자들이 ‘싸이월드’에 올린 TGIF나 베니건스 사진으로까지 번져갔다. 결국 밥값보다 비싼 커피 값 논쟁은, 술값보다는싼 커피 값으로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남녀공방전으로 확대되어 된장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대한민국에서 ‘칙릿(Chick-lit)’의 탄생은 어쩐지 불온하다. 된장녀들이나 읽을 책이란 인식이 무의식에 깔려 있는 탓도 있다. 하지만 굳이 칙릿의 기원을 따라가보면, 내가 생각하는 칙릿 소설의 기원은 ‘제인 오스틴’에 있다. 칙릿이라면 가볍고 말랑말랑한 하이틴 로맨스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에도 등장하는 대문호, 제인 오스틴 같은 작가를 대입하면 어쩐지 억지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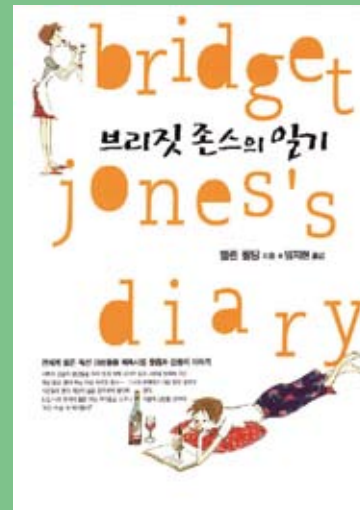
한국에서 칙릿 소설이 소개되고 회자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이다. 그리고 그 기원이 바로 《브

릿 존스의 일기》였다. 브릿 존스의 일과 사랑을 다룬 소설의 엄청난 성공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졌으니, 스토리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이 시대의 미적 기준과 어울리지 않는 뚱뚱한 여자가 어떻게 연애하고, 직업전선에서 고군분투하며, 게이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종 일관 유쾌하게 흐르는 것이다.

브리짓 존스를 쓴 작가 헬렌 필딩은 ‘작가의 말’에서 자신의 작품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 대한 오마주라는 말을 했다. 브릿의 모델이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엘리자베스 베넷’이고, 오만한 남자 ‘다아시’는 이 책의 남자 주인공인 ‘마크 다시’라는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다아시’라는 이름은 브릿 존스의 남자 주인공 ‘다시’와 이름이 똑같다!). 말하자면 칙릿의 원형은 ‘제인 오스틴’이 이미 200여 년 전에 다 만들어놓은 셈이다.

‘제인 오스틴스런’ 제목인 《오만과 편견》, 《이성과 감성》 같은 대립구도는 칙릿 소설들이 종종 보여주는 남녀 관계의 모습을 분명히 담고 있다. 직장에서 사고치는 여성과 오만한 남자가 벌이는 사랑 이야기가 칙릿의 주요 스토리 아닌가. 칙릿 소설뿐만 아니라 이른

글 /
백영옥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바 칙릿 영화라는 것도 그렇게 탄생된다. 특히 로라 애프런의 <유브 갓 메일>에 등장하는 남녀 주인공의 캐릭터는 제인 오스틴 소설의 남녀 주인공의 갈등을 21세기 뉴욕 스타일로 멋지게 재해석하고 있다.

뉴욕 5번가에서 ‘길모퉁이 서점’이라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여자와 ‘폭스’라는 대형 서점을 운영하는 남자의 이권 다툼이 어떻게 사랑으로 변화되어가는가를 유심히 살피는 이 영화에서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번이나 이 책을 읽었다고 고백하는 여자 앞에서 이 남자가 뜨악해하는 표정이라니. 서양 여자들에게 제인 오스틴은 말하자면 어린 시절부터의 로망인 것이다. 내 나이 또래의 여자 애들이 《키다리 아저씨》나 《빨강머리 앤》에 열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긴 《뉴욕타임스》 편집장까지 지낸 로라 애프런 역시 제인 오스틴에 대한 사랑을 자기 영화에서 목 터지게 외쳐대고 있지 않은가! “오만과 편견의 캐릭터들은 정말 너무나 훌륭해요!”

지금은 ‘문호’ 대접을 받는 제인 오스틴이지만, 당시 그녀는 그저 세태소설을 쓰는 풍속 작가에 지나지 않

았다. 자식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남자 집안의 재산을 꼼꼼히 따지는 부모들의 행동들은 어떨까. 재산이 5만 파운드가 있고, 개인 마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정원이 몇 야드고, 하인이 몇 명인가를 따지는 모습은 ‘속물적이다’라는 말을 듣기엔 딱이다.

심지어 제인 오스틴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변호사나 군인, 해병 제독들은 품위 있는 직업이지만, 의사란 비천한 직업이라고 딱 잘라 말한 것이다. 비약일 수 있겠지만 가히 <왕꽃 선녀님>이나 <하늘이시여> 같은 임성한 드라마에 맞먹을 범한 속물성이다. 그렇다면 제인 오스틴을 ‘된장녀들의 어머니’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사실 ‘결혼’이란 인류 보편의 문제이고,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은 엄연히 후손을 이어 자손을 번성시키고자 하는 ‘유전자의 명령’이다. 이른바 ‘칙릿=된장녀들의 애독서’라는 이상한 공식을 가지고 있거나 칙릿은 ‘스타벅스에서 6천 원짜리 커피를 마시며 읽는 소설’이란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기원이 제인 오스틴에 있다는 내 이야기가 좀 파격적으로 들릴



지도 모른다.

그러나 칙릿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어떤 시대든 연애나 결혼은 모든 이의 관심사였다. 물론 언제나 ‘해피엔딩’을 지향했던 오스틴과 다르게 요즘의 칙릿들은 연애에 실패하고 결국 자신만의 길을 가는 보다 ‘성장소설’의 형식을 띠게 되었다는 차별점이 생겼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건 시대에 맞게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어가는 자연스런 현상이란 생각이 든다.

사실 ‘칙릿형’ 소설들이 된장녀 오명을 쓰게 된 것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대대적인 성공 이후다.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까지 만들어져 ‘샤넬’과 ‘프라다’, ‘발렌시아가’ 같은 패션 명품들이 커다란 스크린을 넘치도록 채웠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칙릿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소설이 《내 나이 서른하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소설 속 주인공들이 ‘바카라(프랑스의 최고 수제 크리스털 브랜드) 잔으로 물을 한잔 마신 다음, 얼굴과 몸에 여러 가지 크림을 꼼꼼히 바르고 나서’ 잠드는 건 아니다.



언젠가 술자리에서 평론가 김미현에게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를 남자들이 사는 이유를 들은 적이 있다.

“가령 남자들은 궁금했던 거지. 요즘 여자들은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립스틱은 몇 호를 쓰는지. 바비 브라운을 쓰는지, 엘리자베스 아덴을 쓰는지,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이 말이야.”

이 얘길 듣고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난다. 칙릿이란 장르의 특성상 ‘당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를 나타내는 기호로 브랜드만큼 친숙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칙릿 소설의 등장은 그러므로 이 시대의 가장 예민한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

중요한 건 칙릿의 진화다. 제인 오스틴이 ‘언제나 해피엔딩’을 외쳤던 것과는 달리 지금의 소설들에 어떤 방식의 해석들이 덧붙여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 말이다. 지켜볼 것은 이제 칙릿형 소설의 여성 캐릭터들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예민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스타벅스는 트렌디하지도, 멋지지도 않다. 차라리 주인공의 손에 생수를 들게 하느니만 못하니까.

백영옥

2006년 <고양이 산티>로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았으며 지은 책으로 <마블로 불러닉 신고 산책하기>가 있다. 현재 조선일보에 ‘백영옥의 트렌드 샷’을 연재 중이다. 012345678910@hanmail.net



예술의 새로운 지형

개념을 창조하는 미술

개념 미술은 관객을 향한
폭력인가,
새로운 분야로의
월경(越境)인가.

개념 미술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본다.

마르셀 뒤샹, 〈샘〉, 1917
화장실 소변기를 작품으로 선언한 개념미술의
시조 격인 작품.

글 / 이선영 (미술평론가)



르네 마그리트, 〈심금〉, 캔버스에 유채, 1960
르네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적 회화는 개념의
변주가 작품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볼프강 라이프, 〈민들레 들판에서〉, 마인드 스페이스
들판에서 민들레 꽃가루를 채취하고 있는 작업으로, 작업 과정 모두 작품 개념에 속한다.



전원길, 〈고추〉, 1986
자연 속에서 행해지는 일시적인 행위를 사진 자료로 제시했다.

시각 이미지의 역사는 원시시대의 동굴벽화부터 시작되지만 제도로서의 미술, 가령 미술관 속의 미술품과 이론으로서의 미학, 미술사, 비평 등이 탄생한 것은 근대에 와서다. 미술에 대한 개념 역시 신화, 철학, 종교 등의 사고에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가 근대에 와서 자율화된다. 이후 주기가 부쩍 짧아진 여러 미술운동의 강령 속에는 각기 다른 사조와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개념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현대미술은 모두 개념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본래 지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에 호소하는 미술은 개념적 속성이 있다. 하나의 사조로서의 개념미술은 근현대미술이 가진 잠재적인 의미의 개념적 속성을 더욱 자의식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술사적으로 볼 때 개념미술은 세계대전 이후 극도로 파괴적이고 허무주의적 분위기에 휩쓸린 시기에 그 맹아가 잠재해 있었고, 모든 것이 용인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1960~70년대에 만개하였다. 그것은 1980년대 이후에도 다원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완된 문화의 흐름 속에서 또 다른 변종으로 존속한다.

미술에서의 새로운 개념은 급진적 입장에서 미술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예술을 삶과 일치시키며, ‘예술의 종말’을 선언하고 나선 사조들이 등장할 때마다 호출되었다. 미술은 사조에 따라서 현실의 재현, 자아의 표

현, 형식의 구성 또는 해체 등으로 다양하게 변모해왔다. 그것들과 ‘개념미술’이라고 불리는 사조의 차이는, 후자가 예술가의 전문적 솜씨가 결정화된 최종적인 산물보다 예술가의 의도에 방점을 찍어준 점에 있다.

산물이 아닌 의도가 강조됨으로서 미술의 범위는 무한대가 되었다. 예술가는 화장실에서 주워온 더럽고 흔해 빠진 물건도 작품으로 선언할 권리가 있다. 현대 미학이나 미술사 책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마르셀 뒤샹의 〈샘〉은 개념미술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선언적으로는 모든 것이 예술작품이 될 수 있었던 만큼, 그 누구도 예술가가 될 수 있었다. 좌대 위에 올려진 조각이나 액자 안에 끼워진 그림, 그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미술관은 부정되었고, 더 이상 미술은 솜씨와 기능이 아닌 구상, 의도, 태도, 이념 또는 상황에 놓여졌다.

개념미술은 손수 제작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미술가들의 머리를 갇는 전통의 무게는 물론 본격 소비사회를 가득 채워가던 물건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으며, 그들을 에워싼 환경에 대해 메타적인 차원에서 반성할 수 있었다. 감각보다는 개념을 중시하는, 다소간 금욕주의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경향은 “세상은 흥미로운 물체들로 가득하기에 더 이상 덧붙이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던 개념미술가의 말에 압축

되어 있다. 상품이나 물신으로 귀결될 최종 산물보다는 예술의 창조적 기능을 중시한 것이다.

그러나 개념미술은 개념이 구체화될 최소한의 매체까지 거부할 수는 없었다. 미술관 안 또는 미술관 밖에서 실행된 개념미술은 비록 그림이나 조각의 형식은 아니었지만 이내 사진, 동영상, 텍스트, 스케치 등으로 표현된 자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개념미술이 사용한 다양한 매체 중에서 언어의 사용은 핵심적이었다. 개념미술의 관람자는 자료들을 해독해야 한다.

그러나 독단주의를 벗어나 무한한 개방을 지향하는 듯한 개념미술은 그것이 극복하고자 했던 다른 사조와 마찬가지로 한계에 봉착했다. 비평가 수지 개블릭이 지적하듯, 넘쳐나는 선택적 상황 속에서 무의미함의 낙인이 미술에 찍혀진 것이다. 과도한 선택 가능성은 실제로 가능한 혁신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모든 것이 미술이 될 때 미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위험이 있다. 숨씨와 결과물 대신에 관념과 의도를 중시하는 개념미술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미술의 정점이었을 뿐이었다.

작가의 의도만을 중시하는 것은 결과적 산물만 중시하는 것 못지않게 오류이다. 창작이나 수용의 과정을 살펴볼 때 의도와 결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에서 창조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또한 의도 역시 결과물을 통해서 파악되

는 것이라고 볼 때, 개념미술의 혁신은 반쪽짜리가 아니었을까.

아카이브 형태로 수많은 자료더미를 늘어놓고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달라는 태도는 소통의 측면에서는 관람자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다. 개념의 출발선으로 간주되었을 예술가 주체의 위상이 부정된 것도 아니다. 또한 개념주의는 물신주의마저도 완전히 거부하지 못했다. 유명한 개념미술가들의 작품은 오늘날 현대 미술관에 고이 모셔져 있고, 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장과 관료 제도를 이용하려는 전략 또한 팽배해 있다. 어떤 개념미술은 더 많은 돈과 더 막강한 제도와 더 많은 자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의 시장과 제도는 거대한 완충장치가 되어 어떠한 전위적인 예술가의 의도도 본래와 다르게 왜곡시켜왔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누구나 예술가일 수 있고 무엇이나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한 이상주의거나 소박한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버타 스미스는 《개념 미술》에서 개념주의는 예술을 민주화시키지도 않았고 유일무이한 예술품을 제거하지도 않았으며 예술시장을 비껴가지도 예술의 소유권을 개혁시키지도 않았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개념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우선 개념미술에서 ‘개념’이란 철학적 뉘앙스가 강하다. 개념미술은 예술을 철학에 접목

시키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들뢰즈와 가타리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말하듯이, 예술은 감각을 개념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아니다. 예술이 창조하는 것은 감각이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미술이 개념에 집중한다 해도 그것은 개념에 대한 감각일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철학은 개념들을 끌어내는 반면 예술은 지각과 정서들을 끌어낸다. 철학은 개념의 형태에, 예술은 감각의 힘에 집중한다. 철학과 예술은 서로 얽히지만 동일화되지는 않는다. 미술은 미술이라는 극점을 가지고 자신의 고유한 방법을 통해 인접 분야와 교차할 필요가 있다. 차이의 확인은 진정한 종합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철학이 끌어내는 개념조차도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되는 것이며 창조되어야만 한다. 철학이란 개념들을 형성하고 창안하고 만드는 기술이다.

어떤 개념이 그 이전의 것보다 나은 것이라면 그 까닭은 그 개념이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들과 울림들을 듣게 해주고 어떤 사건들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개념이 그렇게 창조적으로 정의되었을 때 비로소 예술과 관련될 수 있다. 창조로서의 개념은 추론이나 추론의 형식화, 의미가 제거된 명제, 또는 수사학과 거리가 있다. 그것은 감각들, 다시 말해 지각들과 정서들, 풍경들과 표정들, 비전들과 생성들이다. 세계를 가

득 채우며, 또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지 불가능한 힘들을 감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체험된 것을 지각과 정서로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스타일이 필요하다. 조각가 자코메티는 시간과 공간 속에 정지된 그러한 비전들을 스타일이라고 부른다. 진정한 개념미술은 단순한 견해나 감정, 무질서들만으로 채워진 잡다한 자료들이나 독단으로 기울여지기 마련인 투명한 소통에 대한 이상주의적 관념들-현대미술은 토론과 논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을 의심해야 한다. 그러나 개념미술이 미술 아닌 것들을 널리 끌어내는 과정에서 정작 미술 자신을 이루고 있는 이질적 타자들을 발견한 공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선영

이화여대와 홍익대에서 생물학과 미술사를 공부했고, 1994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미술평론 부문으로 등단했다. 《미술평단》 편집장, 《미술과 담론》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 제1회 석남젊은미술이론가상을 수상했다. 현재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indiansummer68@hanmail.net



김수진, 〈변화 가능한 텍스트〉, 1999
관객이 신문을 덮은 철가투를 헤쳐가며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할 수 있다.



고산금, 〈동아일보, 2007. 1. 12〉, 2007
신문 기사를 진주 구슬로 형태화했다.



Mioon(김민+최문), 〈sign city Tokyo〉, 2007
코드화된 현대적 환경을 주제로 한다.



김영진, 〈건널 수 있는 강〉, 2005
설치미술로 이념이나 개념의 무상함을 표현했다.



김을, 〈그림〉
메모지 위에 그림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담았다.



김향남, 〈Strange-Dand Scape〉, 유화, 2004
개념미술 이후에도 회화나 조각은 복귀되었지만 개념성이 가미되어 있다. 화면 오른쪽에 마르셀 뒤샹의 작품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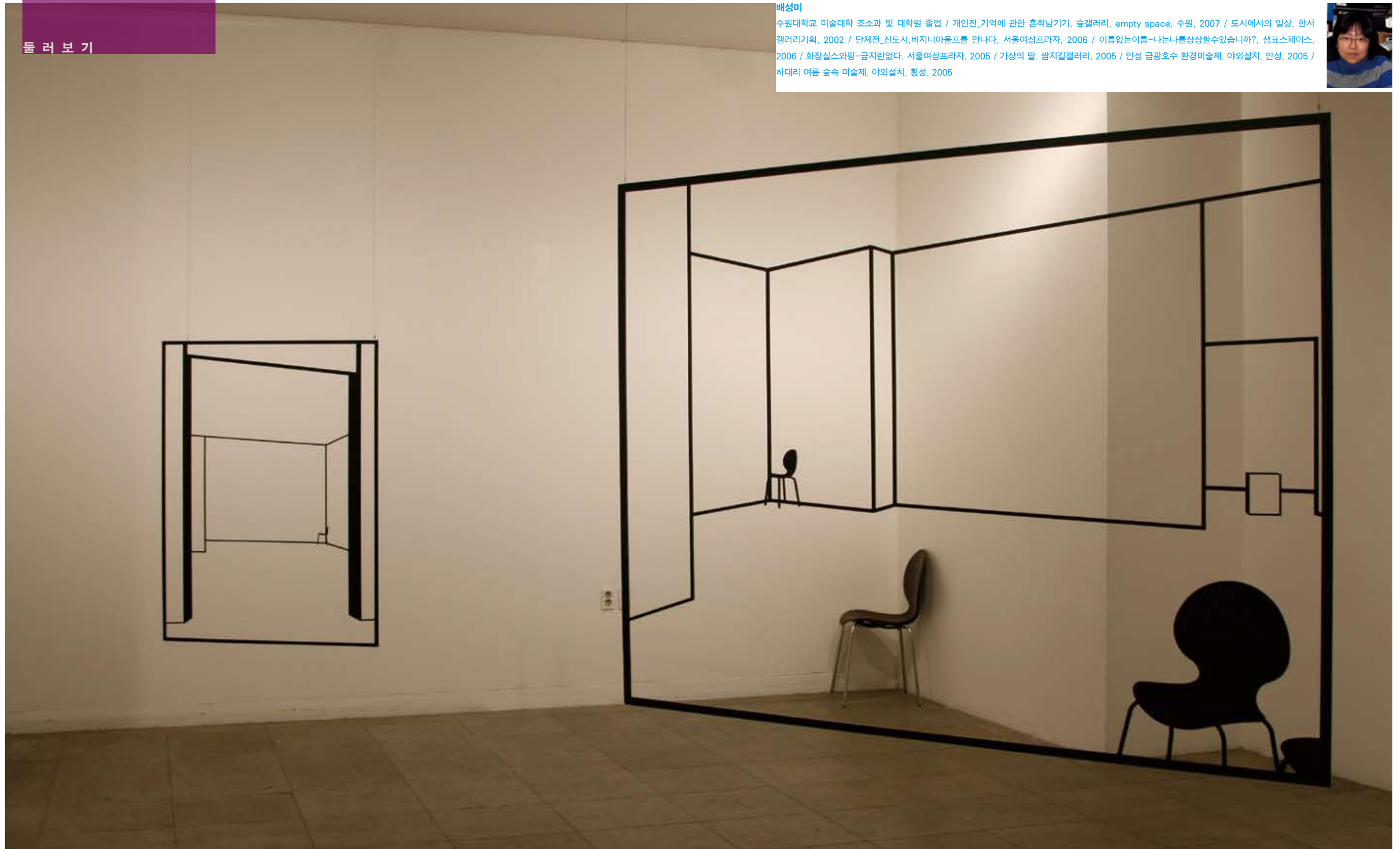
김지훈

서울대학교 조소과 대학원 졸업 / 개인전_HORN, 노암갤러리, 차이갤러리, 2007 / HOLE, 덕원갤러리, 시안미술관, 2005 / 한계에 대한 대응, 가산화랑, 2004 / 단체전_‘유리상자·스튜디오’전, 봉산문화회관, 2007 / 금강자연미술프레비엔날레, 공주박물관, 2007 / ‘포스코스틸아트’전, 포스코미술관, 2007 /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춘천MBC, 2007 / 수원예술인축제, 수원미술관, 2007



배성미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대학원 졸업 / 개인전_기억에 관한 흔적남기기, 숭례로, empty space, 수원, 2007 / 도시에서의 일상, 한서 갤러리기획, 2002 / 단체전_신도시, 버지니아울프를 만나다, 서울여성프라자, 2006 / 이름없는이름-나는나를상상할수있습니까?, 샘표스페이스, 2006 / 화장실스와핑-금지란없다, 서울여성프라자, 2005 / 가상의 딸, 씬지길갤러리, 2005 / 안성 금광호수 환경미술제, 야외설치, 안성, 2005 / 하대리 여름 숲속 미술제, 야외설치, 황성, 2005



Graphic design Type.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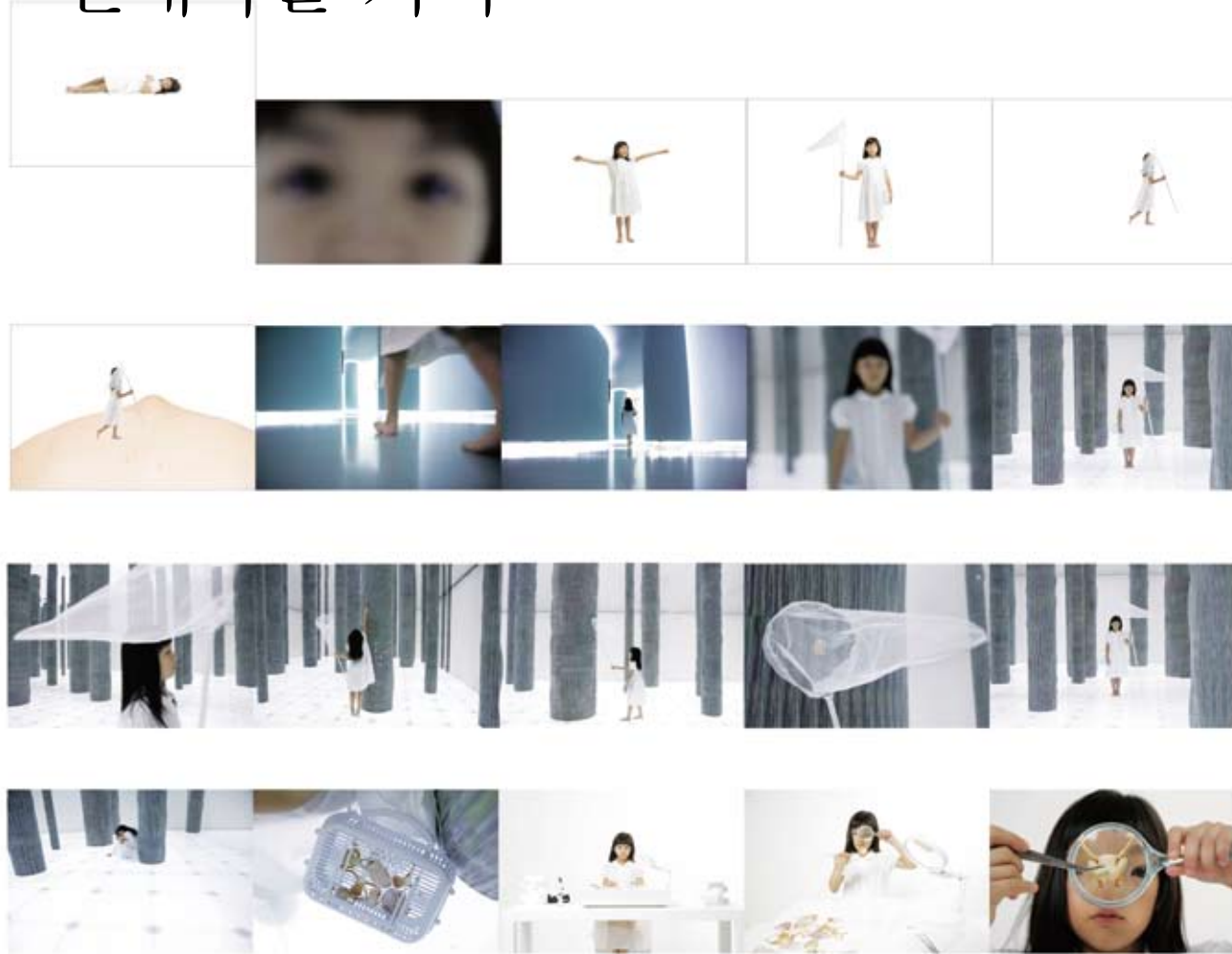
www.typepage.com

Artis
t
essay

예 술 가 에 세 이

신대륙을 가다

김용호 (사진작가, 도프앤 컴퍼니 대표)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있다. 그 어머니는 몸으로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또 다른 자아를 낳고 살아가야 하는 숙명을 받아들이며 또 다른 어머니 혹은 생명의 모체로서 지구에 서 있다. 지구를 딛고 선 우리의 몸은 피비우스의 띠와도 같이 순환하고 있고, 유기적이며, 눈에 보이는 것 너머 규정할 수 없이 놀라운 차원의 공간을 넘나들고 있는지 모른다.

<몸-MOM>展을 준비하면서 직업, 나이, 성별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 작업은 외부로 드러나는 상식을 뛰어넘어 '벗은 몸은 누구나 같다'라는 명제에서 시작하여 '표본화'되었다. 표본의 대상이란, 정보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보도록 한다. 나를 낳아준 부모의 몸, 친구의 몸, 자식의 몸……. 그것이 곧 사회적 시선이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몸으로, 몸이 가진 사회성에 대한 분류의 표본은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우리에게 보여진다.

예술가 에세이에서는 예술가가 직접 자신의 주관적 예술관 혹은 작품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소개한다.

사진작가 김용호는 몸을 말한다. 그에게 몸은 편견을 벗어난 신대륙이다. 사람과 대상,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편견과 상식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그는 몸 위에서 말한다.

Part 1-신대륙의 자연과 생물

등은 달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다. '등의 소유자인 나 스스로는 이면을 보지 못하는데 타인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명제로부터 출발한 시선은 새로운 대륙, 즉 신대륙을 찾아가는 여정의 근간을 이룬다. 그 사람의 둥근 어깨와 가는 허리 등은 개인의 인격체가 만들어낸 하나의 정신과 영혼의 집합체로, 그 사람의 인생이 집약되어 있고 삶을 표현하는 언어로 발견된다고 작가는 말한다.

Part 2-채집된 몸(Houses of meditation in the land)

작가의 뷰파인더는, 지구의 지배자가 사람이 아니었을 경우를 가장한 가설에 관한 것이다. 우리보다 우수한 종족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우리는 표본실의 박제와도 같이 박제화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에서 Part 2-채집된 몸으로의 탐험은 시작된다.

표본실 액자에 갇힌 인간의 몸은, 사유도 철학도 아닌 소통의 단절로 이루어진 작고 나약한 곤충의 그것이거나 무리를 이룬 모듬의 방식으로 새로운 전시의 표현방식을 보여준다.

Part 3-신대륙용 여행가방 그리고 상품화된 몸

입체적 오브제 중 하나로, 악어가죽 백이 있다. 산업화되고 상업적인 감성이 담긴 대표적 메커니즘의 결과물이라 규정할 수 있다. 우리의 몸보다 우월한 종(種)의 몸이 존재했다라면 우리의 표피 또는 가죽이 채집되어 그들의 메커니즘을 증명하는 표본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냉소이다.

Part 4-소녀 신대륙을 가다

인공의 숲에서 자연의 숲으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그려지는 변종된 이미지 편집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몸을 탄생시키고, 여자의 몸-어머니의 모태가 되는 소녀. 그 소녀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환상적인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를 다중적 내러티브와 비주얼적 쇼크의 음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Part 5-몸

몸을 통해서 새로운 몸을 찾기 위한 시도는, '리얼 몸'을 이미지화하였다. 나이와 성별 제한 없이 작가의 카메라에 채집된 몸은, 우리가 호호하는 몸이며 누구든 소유하고 있는 절대 미의 객체이다. 리얼 몸의 현재적 관점의 표현은 가장 기본이 되는 채집이며, 블랙 앤드 화이트 방식의 프린트로 표본화되어 몸의 가장 직설적 방식으로 나열되었다.



나는 몸이다

나는 언제부터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문득, 눈을 떴을 때부터

이 공간에 나 혼자 있고

여기는 밤도 낮도 없다.

눈을 감으면 잠든 듯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깨고 싶으면 깬다.

부를 일도 없나보다.

부르지 않으니 소리도 없나보다.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이 들었다.

보다 많은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서 나왔고

내가 있는 공간을 관찰하고,

무언가, 나는 소리와 움직임을 들으려고 노력했다.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다.

나는 내 공간에 희미한 존재들의 이름을 붙였다.

머리를 흔들면 부드럽게 머리카락 사이로

어떤 기운이 흘러나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출렁이게 하고,

그것은 내 코끝을 지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사라졌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것은 돌아왔다.

눈을 감고 있을 때,

코끝을 지나가는 그것을 느꼈다.

반가워 손을 뻗으나,

잡히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바람이라 불렀다.

난 내가 서 있을 수도 있고,

떠 있을 수도 있는 곳의 이름도 붙였다.

땅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내 몸은 보다 안정감을 가졌다.

그전엔 이 무한공간에서

어디도 내가

자리 잡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름을 붙인 땅은

내가 있는 곳의 위치를

발바닥의 감촉으로 전달해주었다.

눈을 감고 누웠을 때

그 땅은 거대한 평면감으로

나를 받쳐주었다.

그때 나는,

공간의 무한함과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끝을 문득 느꼈다.

조금씩 소리가 들려왔다.

무심코 내가 지른 소리.

아

음

호

등의 소리가 공간을 지나

바람과 함께 돌아왔다.

돌아와서 내 주변에 머물렀다.

소리가 들리자,

그것은 멀리서 나를 부르는 소리 같았고

나를 부르는 이름 같았다.

난, 그 공간의 울림감 같은 소리를 내 이름으로 썼다.

주변의 공간과

주변의 친구들인 공간과 바람과 땅의 친구들이 불러준

이름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주변의 변화에 따라

음

몸

맘

마미 등으로

나의 감정에 따라 달리 들려왔다.

나는, 몸(MOM)이라 썼다.

나는 이름을

나의 이름을 불러준

미지의 공간과 바람과 땅의 친구들을 향해

길을 떠났다.

나는 몸(MOM)이다.

김용호 사진전 몸

2007. 11. 16~2008. 1. 27

대림미술관

김용호

공간사 사진부장과 에스모드 서울 홍보실장, 한국패션사진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크리에이티브 그룹 '도프앤 컴퍼니'의 대표로 있다. 대한민국 광고대상을 수차례 수상하기도 했으며, 한국 문화예술 명인전, 아름다운 재단 사진전 등 대규모의 획기적인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사진 작업 활동을 하고 있고, 저널과 책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꾸준히 글을 발표하고 있다.
yhk2481@kornet.net

cultural space in Seoul

홍대
이야기
3

홍대앞 다시 보기

상권과 예술현장이 섞여 있는 홍대앞.
공존이 주어진 현실이라면 남은 과
제는 화합과 조화 그리고 건강한 문
화예술의 자생능력일 것이다.

‘홍대앞’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클럽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홍대앞 최고의 상권은 따로 있다. 주말 저녁이 되어야 비로소 북적대는 클럽들과 달리 일주일 내내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바로 걷고 싶은 거리를 가득 메운 고기집과 365번지 일대를 빼곡하게 채운 옷가게들이다. 걷고 싶은 거리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건 고기집들이다. 오죽하면 거리가 조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고기) 굽고 싶은 거리’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또 하나의 대표적인 상권인 옷가게들이 밀집한 구역은 365번지다. 홍익대학교 정문 앞으로 뻗어 있는 대로를 중심으로 걷고 싶은 거리 맞은편의 일명 주차장 길로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2~3층 규모의 낡은 건물들이 밀집한 모습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바로 번지수를 따서 ‘365번지’라고 부르는 구역이다.

365번지는 행정구역상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로 표시되어 있다. 1999년, 서울시에서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계획에 365번지를 포함시키면서 이 지역을 철거하고 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는 365번지를 매입할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라도 도로 정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이 낡은 건물이 내뿜는 묘한 분위기가 홍대앞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했고, 덕분에 이 지역 어느 상점 주인의 말처럼 ‘거리 가판대에 어떤 물건을 내놓아도 순식간에 동이 날 정도’로 365번

글 / 이동준 (번역가, 칼럼니스트, 출판기획자, 북세븐틴 에이전시 대표)



지가 어느새 상업적인 매력을 지닌 블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그 와중에 개성 있는 공방과 같은 소규모 상업점과 예술가들의 작업실은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둘씩 변두리 지역으로 떠난 반면, 그 자리에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월세와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술집과 유행 상품을 취급하는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만 늘어나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65번지에 있는 한 건물의 3층 다락방에서는 치열한 상권으로 변해버린 현실 속에서 이 독특한 건물군의 역사적, 건축학적 의미를 되살리고 보존하려는 지역주민과 문화인들의 모임이 있었다. '365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이들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365번지가 언젠가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것을 막고 지나치게 상업화되어버린 지역정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3년 가까이 활동했지만, 결국은 금년 4월에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그동안 365모임의 회원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했던 한 멤버는 지난 3년을 이렇게 회상한다.

“당국의 물리적인 철거 압력만이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이미 충분히 침투한 자본의 논리만 가지고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철거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어요. 예술가들의 작업실은 대부분 이미 다른 곳으로 둥지를 옮겼고, 하루라도 더 이곳에서 이익을 남겨보려고, 그리고 만일 철거가 시작될 경우 보상금을 받기 위해 비싼 보

증금과 권리금을 치르고 들어오는 상업점 주인들은 365번지의 미래나 이 낡은 건물들이 지닌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으니까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난 내가 얼마 전까지 8년간 베를린에 살면서 경험했던 한 예술가 집단을 다시 떠올렸다. 서교 365번지처럼 낡은 건물이지만 철거의 압력이나 상업화가 아니라 오히려 당국과의 조화를 이루며 문화예술 관광지로 거듭났던 그곳의 사례를 잠시 소개해보기로 하겠다.

자유로운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유령의 집, 독일 베를린의 '타헬레스'

통일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연방의회에서 자동차로 불과 5분 정도 떨어진 시내 한복판에는 '타헬레스'(Tacheles)'라는 이름의 예술가 집단거주촌이 있다. 1990년 2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타헬레스'라는 한 구 서독 예술가 단체의 회원들이 소방차까지 동원해서 대규모 퍼포먼스를 벌이며 폐허가 되어 있던 동베를린의 건물을 '점령'하면서 탄생한 공간이다.

당시만 해도 동베를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방치되어 있던 건물, 통일 전에 서독으로 망명한 동독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빈집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통일 이후, 사람들은 이런 빈집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공동생활을 하며 대안가족을 형성하고 살기도 했고, 예술가들은 집단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타헬레스 역시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에 속했다.

1906년 백화점 건물로 지어졌던 타헬레스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폭격, 동서독 분단 등의 역사적 소용돌이를 거치는 동안 언제부터인가 폐허로 방치되었고, 한때 구 동독 시절에는 건물의 성한 부분이 애완견 센터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건물을 차지한 타헬레스 회원들은 1층에 카페와 화랑, 2층에 극장과 공연장을 만들고 나머지 공간들은 넓으면 전시장, 좁으면 작업실로 꾸며 나갔다. 소문을 듣고 전 세계에서 찾아드는 외국인 예술가들의 수도 점점 늘어갔다. 물론 그 와중에 건물을 철거하려는 당국과 끊임없는 싸움을 벌여야 했다. 통일독일의 수도로 거듭나려는 베를린,





문화도 예술도 공짜는 없다

2000년 무렵부터 타헬레스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건물 1층에는 고급 음식점과 카페와 새로운 전시장이 들어섰고,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건물도 그 외형은 유지하면서 안전상 문제가 될 만한 지역에 대한 보수공사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재개발을 시행하는 관청도 젊은 예술가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을 아무 대가 없이 지켜준 것은 결코 아

그것도 도심지 한복판에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폐허가 버티고 서 있으니 여간 눈에 거슬리는 게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국의 철거 압력에 굴하지 않고 쉼 새 없이 사고를 치던 타헬레스는 어느새 베를린의 관광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다 허물어져가는 이 폐허더미가 뽐어내는 묘한 매력과 젊은 에너지의 상품가치에 뒤늦게 눈뜬 정부에서는 철거 협박을 거둬들이고 오히려 보조금까지 지원해주며 타헬레스를 예술단지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예술가들은 합법적인 입주권을 얻어냈고, 전기세 등의 관리비 명목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자기 작업실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요상한 유령의 집에서 쏟아져 나온 다국적 괴물들은 언제부터인가 독일은 물론이고 전 유럽의 문화예술 판을 헤집고 다니며 활약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타헬레스를 문화상품화하려는 정부의 욕심에 많은 부분을 양보하기도 했다. 예술가들과 정부의 문화예술 담당청 사이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생겨난 것이다.

니었다. 정부 관청이 주목한 것은 폐허더미 속에서 살아남아 마침내 주류문화와 당당한 위치에 올라서버린 이 괴상한 유령의 집이 발산하는 독특한 아우라와 문화예술적 상품가치였다. 그리고 또다시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타헬레스는 베를린을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르게 되는 독특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다.

다시 홍대앞으로

2007년 9월 7일, 어느 문화평론가의 표현을 빌자면 ‘진도 8.0의 지진’과도 같은 일이 홍대앞에 일어났다. 공기업인 KT&G에서 문화예술사업의 일환으로 홍대앞 한복판에 ‘상상마당’이라는 복합문화공간을 개관한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지진이 아니라 경사가 난 것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하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 자리는 과거 실험예술전용 극장인 씨어터 제로가 입주해 있던 공간이다. 홍대앞 일대에 재건축 붐이 일던 시절, 씨어터 제로가 입주해 있던 건물의 재건축주는 건물이 완공되면 씨어터 제로가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건축주가 KT&G로 바뀌면서 씨어터 제로의 입주 계획 자체가 무효화되고 말았다. 결국 금년 9월, 재건축을 마치고 ‘상상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의 어느 층에서도 씨어터 제로의 간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문화예술 공간이 더욱 필요한 홍대앞에 심지어 대규모 복합문화



공간이 탄생하는 마당에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연합해서 오히려 '홍대앞 문화살리기 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면서까지 상상마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건 그 때문이었다. 그래서일까. 아직까지도 나 역시 솔직히 말하면 지역 분위기와 어울린다기보다 위압감을 주는 외관을 지닌 상상마당에 선뜻 발길이 닿지 않는다. 홍대앞이라는 문화생태계 한복판에 공룡처럼 우뚝 서서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딘지 두렵기까지 하다.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 대기업 자본이 투입된 복합문화공간에 실험예술극장이 들어서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뼈뺀 시선으로 바라보는 홍대앞 문화예술인들의 시각 역시 나이브한 면이 없지 않다. 앞서 베를린의 예술가 거주촌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예술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만큼 매력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개관한 지 채 석 달도 안 된 지금,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지만 그래도 상상마당이 앞으로 홍대앞이라는 문화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떤 기여를 할지에 대해서도 역시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홍대앞 이야기를 마치며

철거의 위기 속에서도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홍대앞 최고의 상권으로 부상한 365번지의 낡은 건물군도, 타헬레스처럼 폭격을 맞은 적도 없는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지으면서 홍대앞의 랜드마크와도 같은 실험예술극장을 몰아내고 우뚝 선 상상마당이라는 문화공룡도,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를 가득 메운 고기집에서 피어오르는 뽕안 연기도, 결국은 모두가 지금의 홍대앞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들이다. 공존이 주어진 현실이라면 남은 과제는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조화, 그리고 건강한 문화예술의 자생 능력일 것이다.



장사가 된다고 몰려든 알뜰한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면 철새처럼 다시 떠나고 말겠지만 홍대앞은 아직도 인디문화의 산실이자 클럽문화의 발상지이고, 예술가들의 작업실에서 시작된 홍대앞 문화가 지니고 있는 아우라 역시 언제까지나 이곳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대앞이라는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홍대앞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남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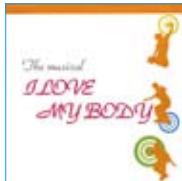
이동준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드라마이론과 문화이론을 전공했다. 지은 책으로 《Catch the Berlin, 언더 더 베를린》, 《위트 상식사전 스페셜》 등이 있고, 홍대앞 사람들이 말하는 홍대문화 오피니언스 《홍대앞으로 와!》를 엮어서 냈다. 옮긴 책으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0곳》, 《서기 1000년의 세계》, 《오류와 우연의 과학사》 등 다수가 있다. dotza@daum.net



문 화 정 보

■서울열린극장 창동 12월 공연 안내 《뮤지컬 'I Love My Body'》



열정과 끼를 지닌 국립 예술고등학교 뮤지컬과 청소년들의 갈등과 방향 그리고 사랑과 우정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함께 신나게 펼쳐지는 뮤지컬.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금연과 금주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어 웃고 즐기고 감동하는 사이 금연과 금주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하며, 'I LOVE MY BODY(나를 아끼고 사랑하기)'라는 제목처럼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역시 내 몸을 사랑하는 길임을 깨닫게 한다. 일상의 딱딱한 규범에 얽매어 경직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긴장감을 풀고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기간: 2007. 12. 3(월)~6(목), 9:30(5일은 9:30, 11:30) ○ 관람료: 단체 6,000원 ○ 대상: 7세 이상 ○ 주최 및 주관: 극단 오렌지컴퍼니 ○ 문의: 02-305-0525

《뮤지컬 '파워레인저 트레저포스'》



○ 기간: 2007. 12. 8(토)~9(일), 매일 11:00, 14:00, 16:00 ○ 관람료: 전석 30,000원 ○ 대상: 24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나이 입증 서류 제시하면 무료 입장 가능 ○ 주최 및 주관: 반다이코리아, (주)씨에이치플레이 ○ 문의: 02-411-0668

《합합뮤지컬 '스노우 드림'》



21세기형으로 새롭게 바뀐 맞춤형 뮤지컬 배드보이즈 3탄 <스노우 드림>은 록과 힙합이 어우러진 힙합뮤지컬이다. 젊은 스태프들과 엄선된 오디션으로 캐스팅된 실력파 배우들의 무대와 콘서트 형식이 재미와 화려함을 더한다.

○ 기간: 2007. 12. 11(화)~20(목), 9:30, 11:00(15일은 9:30, 11:00, 15:00), 16, 19일 공연 없음 ○ 관람료: 일반 20,000원, 단체 10,000원

○ 대상: 만 7세 이상 ○ 주최 및 주관: 서울문화재단, 샘뮤지컬 ○ 문의: 02-504-5034

《프라하 소년소녀 합창단 크리스마스 공연》



12세에서 20세 사이의 소녀들이 중심이 된, 60년 전통의 프라하 소년소녀 합창단은 체코의 최고 앙상블을 자랑한다. 소녀들 특유의 맑은 소리가 특색인 이 합창단은 파리, 베를린, 로마, 헬싱키, 라이프치히, 도쿄, 뉴욕, 오사카, 홍콩, 예루살렘, 몬테카를로, 아부다비, 보스턴, 요하네스버그, 오슬로, 상하이, 타이페이 등 전 세계 다양한 무대에 초청되고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에도 1992, 1994, 1996, 2005, 2006년 5회에 걸쳐 내한한 바 있다.

○ 기간: 2007. 12. 21(금)~22(토), 19:30 ○ 대상: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취학아동부터) ○ 주최 및 주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열린극장 창동 ○ 후원: 서울특별시 ○ 문의: 02-994-1469

■2007년도 문화매개자 전문교육센터 12월 “찾아가는 문화매개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찾아가는 서울시 사회복지관 대상의 교육 과정 “문화예술교육, 새로운 복지의 길을 열다”가 개최된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복지의 사례를 살피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실전 체험 중심의 하루 워크숍’이며, 세부 내용과 교육 시간은 각 복지관 특성에 맞게 맞춤식으로 구성된다.

○ 기간: 2007. 10~12 ○ 장소: 서울 시내 복지관 및 교육 여건에 맞는 장소 ○ 대상: 사회(교육)복지사 및 복지관 이용자 ○ 수강료: 무료 ○ 문의: 02-3290-7134~7(서울문화재단 문화매개자 전문교육센터)

《방과 후 학교 문화예술교육 체험 워크숍》

연극과 무용 수업의 특징적 수업 체험 워크숍. 방과 후 학교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 일시: 12. 8(토) ○ 대상: 방과 후 학교 전담교사와 교육복지사, 70명 내외 ○ 협력기관: 방과 후 전담교사 협의회

《문화예술교육 체험 워크숍》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복지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놀이와 예술의 연관성 및 놀이를 통한 예술교육의 중요성, 장애아동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에서 놀이적 접근방식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진행은 사다리 연극놀이연구소.

○ 일시: 12. 15(토) ○ 대상: 서울 관악구 및 강남 지역 사회복지사, 30명 내외 ○ 협력기관: 중앙 사회복지관

■서울문화재단 남산창작센터 2008년도 1분기 정기 정기 대관 안내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남산창작센터의 2008년도 1분기 대관을 시작한다. 남산창작센터는 대규모 무대공연예술의 창작 여건을 활성화하고 규모 있는 창작 공간을 마련하여 민간 문예 단체의 창작 욕구를 해결하고, 다양한 실험 무대와 아카데미 등을 통해 무대예술인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대관 공간은 제1연습실(315㎡)과 제2연습실(165㎡)이 있고, 1일 4시간씩 3타임을 기본으로 하며 세미나실은 선택 시간제이고 3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연습실과 사용 시간대에 따라 대관료가 다르며 전일 대관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과 접수 방법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연극의 메카 대학로, 서울연극센터 개관



11월 10일, 연극인과 관객의 신(新)문화휴식공간, 서울연극센터가 서울을 대표하는 연극의 메카 대학로에 개관했다. 연극 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연극인과 관객의 정보 교류를 통한 만남과 교류의 산실이 될 것이다.

해화동사무소 청사를 리모델링해 시민과 연극인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한 소통과 교감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진 서울연극센터는, 1층 문화와의 설레는 만남이 있는 정보교류관과 2층 공연예술 지식

공유의 장인 정보자료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김충용 종로구청장, 안호상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그 외 연극계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서울시에서 공연장 확충 및 디자인 거리 조성 등 '대학로 발전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대학로가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계획도 발표되었다.

개관 이후 서울연극센터는 시민들의 연극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공연단체에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회극 낭독, 쇼케이스, 팬사인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 홈페이지: www.e-stc.or.kr ○ 문의: 02-743-9333

■2007 사랑의 문화나눔 12월 프로그램 안내



'사랑의 문화나눔'은 공연을 접하기 힘든 이웃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주로 보호·보육·복지 시설과 시립병동, 장애시설 등에 속한 거동이 어려운 이웃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일상 속 장소에서 작지만 신선한 재미와 감동으로 채워진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공연 작품들을 가지고 직접 기관을 방문한다. 올해 프로그램은 12월 5일 총 300회째의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줄 인형 서커스》

○ 일시: 12/1, 14:00 ○ 장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불효자식 각설이 효자됐다네》

○ 일시: 12/5, 15:00 ○ 장소: 강남정신요양원

■《문화는 내 친구》 11월 아틀리에 투어

10월을 끝으로 《문화는 내 친구》 정규 프로그램이 끝났지만, 11월에 '여성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주제로 아틀리에 투어만은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11월 22일, 서울대 서양화가 출신이며 성신여대 미술학부 서양화과 교수이자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박영근 작가의 평창동 작업실을 찾았다. 박영근 작가는 오랫동안 고속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캔버스 위에 물감을 갈아내는 독특한 작업 방법을 보여주며, 기계가 만들어내는 실타레 같은 반복적인 곡선의 특징을 설명해주었다.

작가의 아틀리에를 찾은 시민들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작가의 작품과 작업실을 보면서 새로운 체험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2007 문화가 있는 놀이터

서울문화재단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진행한 2007 <문화가 있는 놀이터> 모델 전시가 지난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문화재단 전시실에서 열렸다.



시민들의 공모 디자인을 서울문화재단이 현대건설 그리고 협력사와 함께 시공 가능한 놀이터 모델로 설계하고 완성하여 선보였으며, 전시 오프닝 행사로 '노트 플레이' 등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이 병행되었다.

서울문화재단은 앞으로도 현대건설과 함께 서울시는 물론 전국에 개발 모델을 시공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 청사 <강용연展> 전시 안내



바깥에서 조명을 받아야 하는 조각을 부정하며 투명한 아크릴을 소재로 하여 작품을 만들고 그 안에 조명을 설치하여 스스로 빛나도록 실험하는 강용연의 작품전이 서울문화재단 전시실에서 선보인다.

○ 기간: 12. 3~1. 3 ○ 장소: 서울문화재단 1층 전시실

■저명 예술가 예술공헌 프로젝트 1일 '희망의 예술교사(Arts-Educator) 되다'

'저명 예술가 예술공헌 프로젝트 1일 '희망의 예술교사(Arts-Educator) 되다'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전문 문화예술교육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예술가의 예술적 공헌 및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대상에 적합한 다양한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술공헌에 뜻있는 장르별 저명 예술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1일 예술교사(Arts-Educator)' 자원봉사자 그룹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앞으로 피아니스트 김대진, 지휘자 임현정,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상 음악), 남경주(뮤지컬), 조재현(연극), 김덕수(국악), 제임스 전(무용)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 미술이 예술술~ 이야기 속으로 짜진, 신비한 마법예술학교》

미술과 연극, 두 가지 장르를 결합하여 교육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체험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완성해 창의적 통합예술 교과의 새로운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일 교육 장소를 저명 예술가(1일 Arts-Educator)와 교육 대상 학교에 적합한 문화적 공간으로 꾸미는 등 교육 과정 전체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참여 아이들은 '종이, 점토, 플라스틱'이 지닌 각각의 물성을 탐구하고 이해한 다음 그것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등 미술놀이를 연극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또한 아이들은 마법예술학교 실습생으로 마법예술을 체험하고, 유명 방송인 및 저명 예술가는 마법예술학교 교장으로 미술과 연극놀이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며 졸업장을 수여하는 순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교육이 완료된 후에는 교육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물들을 설치 작업으로 연결하여 '우리가 꾸미는 우리학교 전시회'를 진행한다.

○ 기간: 11. 30(금)~12. 1(토) ○ 대상: 효제초등학교 1~3학년 80명 ○ 방송인 박경림 참여

○ 기간: 12. 14(금)~12. 15(토) ○ 대상: 광희초등학교 1~3학년 80명 ○ 방송인 박경림 참여

《고등학교 : 1일 "희망의 예술교사(Arts-Educator) 되다"》

1일 희망의 문화예술교육 교사로 파견된 저명 예술가가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를 대상으로 전문적 예술 기량을 지도하고 예술의 가치와 의미 등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며, 특별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일시: 12/21(금) ○ 대상동아리: 우신고등학교 우신원드 오케스트라

○ 일시: 12/26(수) ○ 대상동아리: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오세미로 ○ 예술가 임도환 참여



초등학교 체험형 통합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연구모임 장면

문화예술교육, 새로운 복지의 길을 열다!

글 / 김 영 민 (서울노인복지센터 문화복지팀장)



“마음껏 두드려볼까요? 작게 작게 작게……크게 크게.”
강당에 모인 60여 분 어르신과 사회복지사들이 노리단(noridan)의 진행에 따라 개성 넘치는 연주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두드림에 불과하던 소리들이 어느 순간 신명나게 변한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2007년 10월 16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노인 및 사회복지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찾아가는 서울시 사회복지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은 노인문화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온몸으로 어르신과 어울려 함께 흥을 나누며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노리단의 특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노인복지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그 기대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 그 속에 숨겨진 원리를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화는 시대가 가진 삶의 모습을 투영한다고 합니다. 1900년대 격동의 세월을 보낸 어르신들과 이제 갓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게 된 신참 노인세대(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자격 기준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가 살아온 역사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체득하고 있는, 이미 익숙하게 재미를 느껴본 문화적 경험이 현재의 문화 향유에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배우는 문화가 어르신들께 새로운 즐거움을 줍니다. 문화 복지는 이 두 가

지가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개인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고, 사회는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하는 어르신들로 인해 보다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변화합니다.

본 워크숍은 어르신들의 역사성(시대를 걸쳐 경험하신 지혜와 시대정신)과 현시대의 창작성을 접목한 문화 복지 실현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주에 사용된 소품은 어르신들께서 평소 즐겨 사용하는 물건들로서,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찢어지며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들을 한데 모아 리듬을 만들고, 추임새를 넣고, 흥을 더하자 새로운 소리(음악)가 창조되었습니다.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가운데 모든 세대가 동등한 문화 권리를 인정받는 것! 이것이 문화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요? 오늘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문화 복지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봤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기획한 서울문화재단과 교육을 맡아준 노리단, 그리고 교육에 동참하신 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김영민
서울노인복지센터 문화복지팀장 seaof4@hanmail.net

서울문화재단 '문화는 내 친구' 회원 500분을 특별히 모십니다.

- 가입 기간: 2007. 8~12월
- 유효 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 회원 가입비: 1만원 (입금 후 namoo3@sfac.or.kr로 확인 메일<이름, 연락처>을 보내셔야만 유료 회원 가입이 승인됩니다.)
- 입금 계좌: 1005-701-173812(우리은행)
- 회원 혜택: 가. 서울문화재단 e-mail 뉴스레터 제공
나. 서울열린극장 창동 관람료 할인 (기본 10%, 경우에 따라 최고 30%, 대관공연 제외)
다. '문화는 내 친구' 프로그램 참여 시 우선 혜택
라. 서울문화재단 발간 《문화+서울》 월간지 우송 (회원 가입 기간)
마. 기타 마중물 회원을 위한 서울문화재단 주최 특별행사 초대

* 본 혜택은 '문화는 내 친구' 마중물 회원으로 참여해주신 500분에 한하며, 향후 회원 혜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 '문화는 내 친구' 마중물 회원 가입자 30분을 추천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2007 우수 문학도서와 서울문화재단 수첩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02-3290-7044

우 편 엽 서

보 내 는 사 람		
이 름	(남 • 여)	생 년 월 일
전 화		
이 메 일		
주 소		

□ □ □	—	□ □ □
-------	---	-------

받 는 사 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문 화 + 서 울

1	3	0	—	8	2	3
---	---	---	---	---	---	---

우표

서울문화재단이 발간하는

월간 《문화 + 서울》이

문화예술정보 광고면을 제공합니다. (내지 및 표3 등)

문의 :

woo@typepage.com

독자의견란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서울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책 (〈예술현장매뉴얼〉시리즈, 〈예술총서〉등) 1권을 보내드립니다.